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6호 HYUNBULNEWS.COM 2025년 4월 9일(음력 3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불기 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기원하는 미륵사지탑 등(燈)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밝혔다. 5월 6일까지 불을 밝히는 '치유·평안·화합의 미륵사지탑 등(燈)'은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빛이 되고, 불안한 일상에 평안을 전하며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겼다. **사진=김내영 기자**



4월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서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

'MZ축제'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

4월 3일, 코엑스서 개막식
'깨달음 찾아라' 주제 진행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4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망의 막을 열었다.

'너의 깨달음을 찾아라! 부디즘 어드벤처'를 주제로 한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4월 3~6일 서울을 대표하는 컨벤션센터 코엑스와 도심 속 천년사찰 봉은사를 연계, 도심에서 펼쳐지는 불교계 종합 테마파크를 목표로 전개됐다. '산업전'과 '붓다 아트페어' '해외 교류전' '히든 담마 챌린지' 등 한층 풍성해진 콘텐츠로 운영됐다.

올해 박람회는 총 368개 업체가 참여해 481개 부스를 운영했다. 올해는 인근 봉은사에서 진행된 2025 국제선명상대회와 연계, 더욱 다채로운 불교문화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MZ세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다.

개막식에서 진우 스님도 MZ세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축제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진우 스님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전통문화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박람회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은호 기자**

〈현장 차주상보〉

선명상 대중화 7개월 여정 'START'

국제선명상대회, 4월 1일 봉은사서 개막식

2~6일 체험프로그램 진행
9월까지 선명상 행사 열려
10월 국제 컨퍼런스 예정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5 국제선명상대회'가 4월 1일 오후 서울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7개월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선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안, 세계 평화'를 주제로 한 '2025 국제선명상대회'는 4월 2~6일 서울 봉은사 곳곳에서 진행될 선명상 프로그램 체험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각지 사찰에서 선명상을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10월 국제 선명상 컨퍼런스를 끝으로 회향한다.

이날 개막식은 최근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법성게 독송으로 막이 올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회사에 앞서 최근 산불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또 미얀마 지진을 언급하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자비행을 실천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설명하며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인 지관수행을 바탕으로 집중명상과 통찰명상을 아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선명상은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고 편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한 수행법"이라며 "바쁜 현대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 속 수행인 '하루 5분 선명상 캠페인'을 소개하며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선명상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제도화의 정책적 제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선명상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전문적인 명상 지도자를 양성하고 더욱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며 "선명상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명상 대중화를 기대하며 각계각층에서 축하도 이어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이번 국제선명상대회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선명상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라면서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의 병고와 삶의 번뇌를 벗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계종은 이날 개막을 시작으로 4월 6일까지 봉은사에서 157가지 선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연다. 초급부터 전문 과정까지 단계별, 목적별로 구분한 프로그램을 직접 고를 수 있는 맞춤형 명상법이 제공된다. **〈현장 차주상보〉**

'2025 국제선명상대회'는 가을까지 이어진다. 5~9월 인천과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호남, 제주 등 전국 주요사찰에서 선명상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10월, 서울 조계사에서 '국제 컨퍼런스 및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2025 국제선명상대회'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관련 기사 5면〉

현대불교신문, AI상담봇 '해심이' 오픈

4월 1일 홈페이지서 서비스
국제불교박람회서 시연행사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진우 스님이 본지 AI상담봇을 살펴보고 있다.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4월 1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불교상담 서비스 '해심이'(解心)를 공식 오픈했다. '해심이'는 구글의 제미나이 무료버전과 구글 AI 검색 기능을 기반으로, 불자 맞춤형 신행 상담은 물론 마음 치유, 명상, 수행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불교신문 뉴스사이트 현불뉴스(hyunbulnews.com)에서 상담봇 아이콘을 누르면 별도의 상담창을 통해 제공된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은 4월 3일부터 6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된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현장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해심이'를 직접 체험하는 시연행사를 진행했다. 개막식 이후 부스들을 라운딩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해심이'를 살펴보고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이 AI기술을 활용하여 불교대중화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은 향후 AI기술과 불교 콘텐츠의 융합을 통해 불교 신행문화의 대중화와 실생활 속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앞으로도 AI기술을 활용,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사 령

명)편집국 편집국장 **여 수 령**
2025년 4월 1일부
이상 1명

국난극복과 마음치유를 위한
담선대법회
담선대법회란 고려시대에 국가에서 3년마다 개최한 법회로, 선(禪)의 지혜로 국난극복과 국운융성을 발원하는 법회입니다.
(중심교재 : 육조단경)
4. 14월 – 4. 20일 (7일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
문의전화 02. 768. 8600 조계사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전국선원수좌회 주관 조계사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4. 20(일) 오후3시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4.14(월) 오후3시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 봉정 영진스님
4.19(토) 오후3시 상원사 용문선원장 관송 의정 대종사
4.18(금) 오후3시 축서사 조실 금곡 무여 대종사
4.15(화) 오전11시 석종사 조실 금아 혜국 대종사
4.17(목) 오후3시 백양사 수좌 월송 일수 대종사
4.16(수) 오후3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편양 현묵 대종사

불교계 자비손길로 화마 휩쓴 상처 보듬다

진우 스님, 피해 현장 상황 점검
종정 성파 대종사, 고운사 신도 격려
복구 위한 자원봉사자 발길 이어져
상진 스님, 희생자 넋 기리며 참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산불로 전소된 고운사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돕기 위해 불교계 곳곳에서 자비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 수장들은 현장과 분향소 등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26일 이번 화마로 전소된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를 비롯해 피해 현장 곳곳을 방문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사찰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 청송대전사로 장소를 옮겨 피해를 확인하고 산불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도 3월 28일 고운사를 찾아 주지 등운 스님과 신도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10시 고운사에 도착한 성파 대종사는 바로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대웅전은 화마 속에서 타지 않고 꿋꿋이 남겨진 곳이기도 하다. 마침 대웅전에서 기도하던 불자들을 만난 성파 대종사는 불자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성파 대종사는 "불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물이 없어도 살지 못하지만 과하면 이들은 마(魔)가 된다"면서 "불이 화마로 변해 산천초목을 모두 태우고 소멸했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지나치면 화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에너지도 과하면 마음의 불이 난다"면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마음을 잘 다스려 더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교에선 마음이 부처라 한다"며 "마음을 잘 쓰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다 변함없는 진리"라고 강조했다.

성파 대종사는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에게도 "화재로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사부대중과 합심해 부처님 도량을 복원하고 앞으로 수행 잘하고 잘 지켜 나가면 된다"고 격려했다.

대웅전 참배 후 성파 대종사는 타버린 가운루와 연수전 등 도량 곳곳을 살펴보며 상황을 살폈다. 사찰이 불타는 가운데, 선원스님들이 목욕탕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몸을 피했던 소방대원들의 이야기를 보고받은 스님은 이들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고운사는 4월 6일부터 정기 법회를 재개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비의 등불을 밝힐 계획이다. 또 봉축을 위한 예산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회향하기로 했다. 매년 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위해 진행해온 1080배 정진 모금운동도 이재민 돕기 모금 운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운사에 따르면 경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30일 능인학원과 대한불교청년회, 포항 죽림사 신도들, 경북경찰청 보현불자회 등에서 100여 명이 고운사를 방문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봉사자들은 구역별로 나눠 사찰 주변 환경정화활동과 대중공양 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포항 죽림사는 밥과 김치 등 3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 봉사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영남 산불 피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상진 스님은 4월 1일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설치된 영남권 산불피해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종단 지도부 및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들과 함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후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번 산불로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 중인 안동 월봉사 주지를 위문하고 신도 대표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산불 발생 직후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필품을 전달했고 맞춤형 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

최악 산불에 보물 전각 전소·불상 훼손

4월 1일까지 피해 집계 결과
영남 사찰 6곳 산불에 피해
불교유산 9건 화마에 훼손돼
발빠른 성보 이운 피해 최소화
국가유산청 "복구계획 수립"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영남 지역 산불의 진화가 이뤄진 가운데 지역 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의 피해상황이 확인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국가유산청이 4월 1일까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찰은 의성 고운사·운람사·만장사, 청송 수정사·보광사, 안동 용담사 등 총 6곳이며, 불교문화유산(국가지정유산, 경북유형문화유산) 9건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사찰은 천년고찰 의성 고운사다. 고운사는 3월 25일 오후 4시 50분경 강한 바람을 타고 넘어온 비화(飛火)로 인해 30동의 건물 가운데 21동이 전소됐다. 소실된 전각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가운루와 연수전이 포함됐다. 이후 조사결과 보물인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의 대좌 일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앞서 의성 운람사는 3월 23일 확산된 산불로 모든 전각이 소실됐다. 이번 화재로 전각과 부속 건물 7개 동이 모두 불에 탔고, 주변 산림도 큰 피해를 입었다. 운람사 대중스님과 신도들은 불길이 운람사를 덮치기 전 아미타삼존불, 탄생불, 신중탱화 등 불교유산을 조문국박물관으로 긴급 이송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비구니 사찰 청송 보광사는 만세루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보광사 극락전은 화마를 피했다.

의성 만장사는 3월 26일 전각 7동 중 5동이 전소됐으며, 나머지 두 동의 건물도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유형문화유산인 만장사 석조여래좌상은 방염포로 포장해 일부만 훼손됐다.

안동 용담사의 무량전(경북도문화유산자료)과 용담사 금정암 화엄강당(경북도문화유산자료)은 소실됐으며, 청송 수정사는 요사채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의성 관덕동 석조보살좌상(경북유형문화유산) 또한 전소됐다.

국가유산청은 산불 위험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국가유산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유지하고, 소산된 문화유산들은 상황 종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존 상태를 점검한 후 본래 위치로 이송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피해규모, 시급성, 추가훼손 방지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소실 및 피해 입은 국가유산의 보수·복원 등에 긴급보수비 및 국가유산 보호기금의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산불 피해 지원 릴레이 성금 기탁 잇따라

교구본사協 3억 6천만원
중앙신도회 2억 4천만원
현대불교신문사 1천만원

대형 산불로 거주처를 잃은 이재민 지원과 문화유산 복구를 위한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등운 스님)는 3월 31일 의성 고운사를 방문,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 기금 3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불교계의 응집을 강조한 전국교구본사협의회 수석부회장 덕조 스님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불교계가 힘을 모은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전국교구본사에서 한마음으로 도와주기에 금방 원상복구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면서 "지역과 사찰이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기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화재 현장을 둘러본 전국교구본사협의회 스님들은 이후 의성군재난본부를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하며 산불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사회 재건에 힘을 보탰다. 은해사는 별도로 3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날 전달된 지원금은 소실된 전각과 문화재 복구, 스님 및 지역민들을 위한 안전한 거처 마련, 재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불교광장 소속 스님들은 고운사를 직접 찾아 복구를 위한 따듯한 마음을 보탰다. 스님들은 4월 1일 주지 등운 스님에게 '고운사 산불 피해 복구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불교광장 대표회장이자 화엄1회 회장 만당 스님을 비롯해 화엄2회 회장 선광 스님, 화엄3회 회장 삼조 스님, 비구니 종책모임 회장 정운 스님 등 불교광장 소속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함께했다.

만당 스님은 "산불 피해 복구에 한 창인 고운사가 하루 빨리 복원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는 3월 31일 진우 스님에게 신도회 회장단과 교구신도회, 신도단체들이 십시일반한 모연금 2억 3945만 1285원을 전달했다. 중앙신도회는 4월 30일까지 기금 모연을 지속해 추후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기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들도 같은 날 1000만원을 전달하며 긴급모금에 힘을 보탰다. 진우 스님은 발 빠르게 모금에 동참해 준 현대불교신문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발행인 혜도 스님은 "천재지변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혹시 모를 사건사고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명우 대표는 "사찰이 여법하게 복구되는 데 현대불교신문도 힘껏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전문 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도 4월 1일 2000만원을 전달하며 영남지역 전소 사찰의 빠른 복원과 이재민 지원을 염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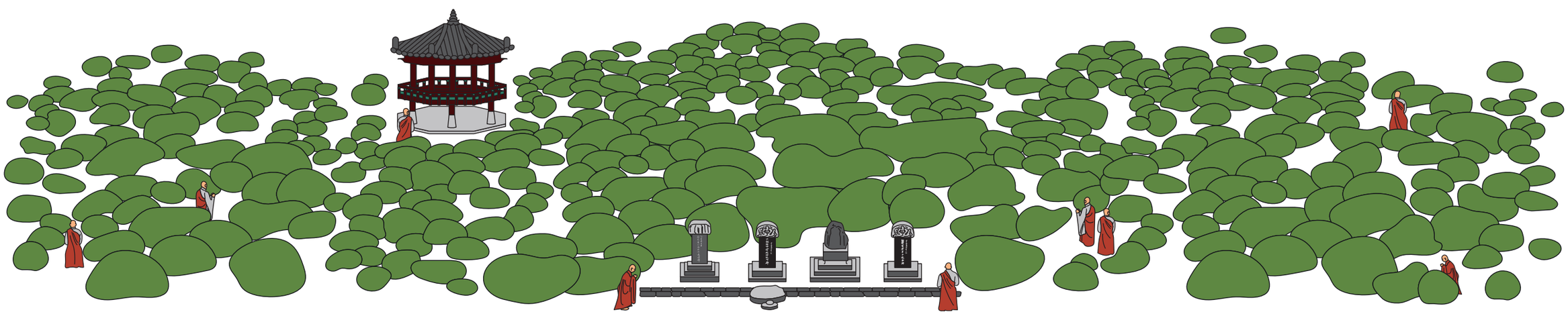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3월 31일 경북 의성 소재 의성체육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관계자를 만나 산불 진화에 필사의 노력을 해준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피해 복구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 천태종은 이어 진우 스님을 찾아 아름다운동행에 기금 20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4월 1일 경북 사랑의 열매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진여원 1500만원, 법보신문이 416만원 등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을 위한 기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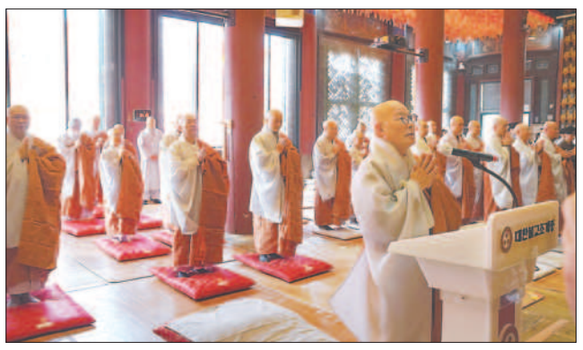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스님들이 산불피해 복구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사도 산불 피해 복구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쌍계사 ssanggyesa
차 tea culture 문화
대축전 festival
미래를 향한 향기로운 여정
2025. 04.17(목) ~04.20(일)
雙磎寺
4월 17일 개원채다
4월 18일 다도의례 및 진감 초의 고산 다맥전수식
4월 19일 茶-디카시를 만나다 축하행사 및 시상식
K-pop 축하공연 - 트리플 에스
4월 20일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하는 K-어울림 콘서트


일원으로 하나된 조계종, 불교 중흥 염원

조계종, 4월 1일 삼원통합 고불식
200여 종무원 108배로 화합 발원
3월 31일 교역직 스님 인사 단행
포교부장 남전·교육부장 덕림 스님


조계종이 '삼원통합 고불식'으로 역사적 결음을 내디뎠다.



진우 스님이 24명의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삼원통합으로 하나된 종무원들은 불교중흥의 원력으로 대통합해 진실한 수행과 정진의 길을 열어 국민들과 불자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고 청년들에게 등불이 되는 미래 세대의 불교로 나아가겠습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일 오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삼원통합 고불식'을 봉행하고 조계종 삼원통합의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고불식은 1994년 종단개혁의 성과로 출범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 체제가 총무원 1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불교중흥 실현 의지를 부처님께 고하고자 마련됐다. 교역직 종무원 50명, 일반직 종무원 150명 등 200명이 동참했다.

고불식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헌향과 총무부장 성화 스님, 포교부장 남전 스님, 교육부장 덕림 스님의 헌화에 이어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기획실장 법오 스님의 경과보고, 고불문 낭독, 108배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고불문에서 동참 대중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합해 미래불교를 밝힐 것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 변화와 불교 발전의 원력으로 종도들과 불자들에게 봉사하며 불법홍포에 공심으로 하나돼 보살행을 실천하고 사회에 회향해 불국토를 이루고자 한다"면서 "자비로 상생하고 지혜로써 화합해 전통의 가치를 오늘에 되살려 희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200여 종무원들은 함께 108배 하며 화합과 상생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져 광명정대한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두루하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조계종은 조직개편에 따라 그동안 별원 조직 등에서 담당해왔던 포교, 출가진흥, 승가교육 및 복지 업무를 총무원이 직접 담당해 불교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법 포교 분야와 승려 교육 분야에 있어 일관되고 지속적인 종책 운영으로 젊고 역동적인 불교를 만드는 데에 진력할 방침이다.

조계종은 조직개편과 함께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조계종연구소와 미디어홍보실을 신설했다. 조계종연구소는 종단의 기존 연구 조직을 통합한 종합 연구소로, 종단 종책 연구의 중추가 돼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신설됐다. 종책별, 분야별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종단 예산과 사업계획 수립의 바탕을 만들고 특히 포교와 승가교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책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교와 관련된 법령 개선책 등도 마련한다.

미디어홍보실은 한국불교와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규모있게 생산하고, 뉴미디어를 통해 종단 대사회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종단 뉴미디어(유튜브, 인스타그램 채널 등) 운영, 미디어 홍보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영상·사진 등 불교 콘텐츠 관리, 불교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기 2569(2025)년 조계종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조계종 포교부장 남전 스님, 교육부장 덕림 스님, 호법부장 도심 스님, 신설된 미디어홍보실 실장 일규(덕안) 스님, 조계종연구소 소장 원철 스님 등 총 24명이 임명됐다.

성행 스님,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3연임

4월 1일, 116표 중 64표 얻어
원경 스님 33표·정덕 스님 15표
"동문 화합해 승가대 발전에 최선"



성행 스님〈사진〉이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3연임에 성공했다. 성행 스님은 4월 1일 김포 중앙승가대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20대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선거에서 116표 중 64표를 얻어 당선됐다. 성행 스님의 임기는 3년이다.

경쟁 후보였던 2번 원경 스님은 33표, 3번 정덕 스님은 15표를 기록했다. 선거인단 123명 중 116명이 참여했고, 무효표는 4표가 있었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선거관리위원장 원소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받은 성행 스님은 먼저 선거가 과열된 점에 대해 대중에게 참회했다. 이어 스님은 "지난 임기 동안 코로나19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번 임기에는 그간 미진했던 과제들을 마무리하고, 동문회와 중앙승가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중앙승가대가 출가자와 입학생 급감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와 법인, 동문들이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낼 때 현재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행 스님은 이번 임기 동안 △개운사 법적 문제 해결 △중앙승가대를 위한 승가육성 프로그램 개발 △동문 단합을 위한 성지순례 추진 △동문추천 중앙교역직 추진 △동문회 후원사찰 확보 △동문권익위원회 창설 △학교발전을 위한 총장 추천협의회 개설 △친선도모를 위한 체육대회 주최 △본부장제 도입을 통한 교구본사별 소통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구성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덕·원경 스님은 "선거인단에 집행부 8인이 포함된 것은 불공정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문제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장 원소 스님은 "총동문회장은 20여 년간 선거 없이 추대돼 왔다. 기존 운영 방식에 따라 집행부가 운영위원으로서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회칙이 엉성한 점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화합의 차원에서 그대로 진행하되, 앞으로 회칙 개정을 통해 선거인단 구성 방식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대학교 불교동아리 성장·지속 방안은?

교수붓다회 1주년 기념행사서
김용진 교수, 활성화 방안 발표
회비 내는 회원으로 재정확충
경북대 등 8곳 우수사례 공유



대학생 전법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으로 전국 대학 불교동아리 활성화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불교동아리 창립이라는 단기적 성과를 넘어 자생력과 지속성을 담보할 시스템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교 불교동아리가 한국불교 미래를 열어갈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향후 방향성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용진 경상국립대 '연화' 지도교수〈사진〉는 3월 29일 동국대 문화관 학명세미나실에서 열린 '교수붓다회 전법해 창립 1주년 기념행사-대학생 불교동아리 우수사례 발표회 및 컨설팅'에서 대학교 불교동아리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참여 활성화 및 재정 확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전국 대학 불교동아리의 양적 성장은 눈에 띄지만, 불교동아리다운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학생 개개인의 불교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내실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회장만이 아닌 임원진 전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법회 일시의 다양화와 시험기간을 피한 행사 진행 △출석률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 △유명 사찰 순례, 셀럽 스님 초청 강연 등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모범적인 대내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회원 증가를 추구하고, 후원금 없이도 자체적인 순수 열정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재정 마련 역시 동아리 지속 운영의 필수 요소로 꼽혔다. 김 교수는 "동아리 회원의 학기별 회비 납부 체계를 도입해 실질적인 회원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도법사의 사찰 및 교구본사에서 후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주현우) △동국대 중앙동아리(정현도) △성균관대 불교동아리(자영우) △전남대 불교동아리(곽다훈) △경북대 불교학생회(김예진) △서정대 국제동아리(민단) △신한대 명상문화동아리(이건우) △봉은사대학생법회(정준우) 등 8개 불교동아리의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이들은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번개모임(당일 공지로 만나 차를 함께 마시는 프로그램), 감사챌린지(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온라인으로 공유), 법등모임(다도·영화·불교 교리 등 주제별 모임) 등 이색적인 활동을 공유했다. 또 불교동아리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문 선배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김순남 교수붓다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교수붓다회 전법해는 전국 17개 시·도 단위 교수 포교 및 대학생 불교동아리 창단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도전법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3월 1일 창단한 교수붓다회 전법해는 교수들의 포교 활동과 불자 교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신행단체다. 현재 160여 명의 불자 교수가 활동하고 있다. 교리학습, 수행, 성지순례 등을 통해 교수와 대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며 대학생 전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김내영 기자



교수붓다회 전법해가 창립 1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5월16일 출발~5월20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일정 : 5월16일~5월25일
▶ 동참금 : 349만원

운남성 성지순례 8일
운남성의 곤명-대리-계족산-여강-샹그릴라 순례
출발일 : 5월10일~17일(6박8일)
▶ 동참금 : 249만원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정토마을 능행스님과 함께 떠나는 수미산 기도 순례
- 전 일정을 불교방송 BTN이 촬영해서 방영 예정입니다.
출발일정 : 5월29일~6월13일 (16일간)
▶ 동참금 : 590만원

중앙아시아 4개국 완전일주 13일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일정 : 6월03일~6월15일(11박13일)
▶ 동참금 : 629만원

티베트 순례 7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 등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출발일정 : 6월28일~7월04일(7일간)
▶ 동참금 : 299만원

인도 라다크 헤미스 축제 8일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출발일정 : 7월01일~7월08일(8일간)
▶ 동참금 : 36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삼사 순례
(화엄사-수월정사-천년고찰 광우사)
출발일정 : 7월01일~7월05일(5일간)
인천-연길(화엄사,수월정사)-백두산 천지-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등)-요양(광우사)-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치유·평안·화합의 봉축燈 밝혔다

봉축위, 4월 2일 광화문서 점등식
미륵사지 석탑 원형…5월 6일까지
"연대와 자비로 다시 하나되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기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치유 · 평안 · 화합의 미륵사지탑 등' 점등식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됐다. 사진=연등회보존위원회

불기 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치유·평안·화합의 미륵사지탑 등(燈)'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밝혔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연등회보존위원회는 4월 2일 광화문광장에서 점등식을 개최했다. 본격적인 점등식 행사에 앞서 동참자들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치유·평안·화합의 미륵사지탑 등(燈)'에는 등불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빛이 되고, 불안한 일상에 평안을 전하며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겼다. 국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원형으로 해 실제 석탑의 약 70% 크기(높이 19.5m, 좌대 포함)의 전통 한지 등으로 제작됐다. 백제 미륵신앙이 담긴 탑의 이상향과 자비·평화의 상징성을 '치유·평안·화합'의 메시지로 풀어냈다는 게 봉축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점등식에서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점등사에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연대의 길을 찾길 강조했다. 스님은 올해 등(燈)의 원형인 천년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떠올리며 "돌 하나하나에 깃든 장인의 정성과 불심이 결국 석탑을 다시 세웠듯이 우리 사회도 연대와 자비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때로 불안을 느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처럼 우리는 본래 하나의 빛이며 서로를 비추고 온기를 나눌 때 더욱 밝아질 수 있다"면서 "점등식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다시금 따뜻한 연대와 공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축사에서 먼저 정치인으로서 극한 대립과 갈등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오 시장은 "이제는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세상의 평안을, 마음의 자비를 염원하는 올해의 봉축표어가 더욱 가슴 깊이 와닿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자비무적(慈悲無敵)'을 강조하며 "자비심을 가득 채우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서로를 조금 더 용납하게 되는 세상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원문 낭독에서 관음종 부원장 도각 스님은 "오늘 밝혀지는 이 전통등 불빛으로 상처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 평안을 구하고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대화합의 세상이 열리길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과거 천년을 등불로 삼아 마음의 평화 속에 부처님 세상에서 새로운 미래 천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한다"고 축원했다.

반세기 만에 나투신 청담 대종사…사리 친견 특별전

5월 29일까지 청담기념관서
태원 스님 "대종사 열반 추모"
6월 초 사리탑 이운 봉안 예정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과 조계종 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내빈들이 전시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도선사 중창조인 청담 대종사(1902~1971)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특별전이 5월 29일까지 삼각산 도선사 청담기념관에서 열린다. 사리탑을 재조성하기 전 진행하는 한시적 공개로, 청담 대종사의 법신 사리를 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담문도회(운영위원장 도호 스님)와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는 3월 30일 호국참회원 2층 교육관과 청담기념관에서 '반세기 만에 나투신 청담대종사 展'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청담 대종사 사리탑 주변 정비 불사 과정에서 수습한 대종사의 사리와 함께 대종사의 일생과 향후 건립될 사리탑을 사진으로 미리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도선사는 1973년 건립한 청담 대종사 사리탑이 50여 년 세월이 지나며 퇴락함에 따라 2023년 12월 대종사 사리탑과 석상 주변에 대한 보수정비 불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오염과 부식, 지반 침하 등으로 해체 복원이 불가피하자 사리탑을 2024년 4월 1일 해체했다. 1973년 봉안했던 청담 대종사의 사리함과 사리, 지석 등이 반세기 만에 모습을 드러내자 사리를 수습해 청담기념관으로 임시 이운했다.

청담 대종사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크게 5부로 기획됐다. 1부 '대종사 열반에 드시다'는 대종사의 열반과 다비 이야기를, 2부 '대종사의 사리탑을 세우다'에서는 고성 옥천사와 문수암, 서울 도선사 등 인연 도량의 사리탑을 살펴볼 수 있다. 3부 '대종사, 다시 세상에 나투시다'는 사리탑 보구 과정이 사진으로 소개됐다. 4부 '대종사 사리친견'에서는 전시회의 하이라이트인 대종사의 사리와 사리함 실물을 만나 볼 수 있다. 마지막 5부 '사리탑을 새롭게 복원하다'는 새롭게 복원하고 있는 사리탑을 미리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됐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대종사의 영결식·다비·사리탑 건립 등 사진 자료 공개를 통해 열반을 추모하고자 한다"면서 "뜻깊은 청담대종사 사리 친견 법석인 만큼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리 친견은 3월 31일부터 5월 29일까지 오전 10시~오후 3시 가능하다. 매주 금요일은 휴관이다. 사리는 특별전 공개 후 6월 초, 사리탑에 이운 봉안될 예정이며 사리탑주 정비 불사는 12월 말 경 회향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개인 현실문제 해결 돕는 '2.0 명상페스티벌' 열린다

목우선원 · 명상상담평생교육원
4월 12일~5월 6일 온오프라인서



개개인은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스트레스와 불안, 인간관계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현대인들이 겪는 갖가지 고민을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명상 축제가 마련돼 주목된다.

목우선원(선원장 인경 스님·사진) 명상상담대학원과 한국명상상담평생교육원이 4월 12일부터 5월 6일까지 '제11차 2.0 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목우선원 선원장 인경 스님 등은 4월 1일 서울 인사동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사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행사는 '개인 현실문제 해결'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명상과 상담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5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인별 명상심리상담-적극적 건강을 향하여' '온라인 강연회 1-마음을 다스리는 상담기술' '온라인 강연회 2-명상을 통한 마음치유의 길' '실내명상체험마당' '야외명상활동'이 포함됐다.

인경 스님은 "진짜 건강한 것은 '병이 없다' '허약하지 않다'가 아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말한다"며 "몸과 마음이 웰빙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나에게 솔직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경 스님은 "우리 사회가 국내외 안팎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팍팍한 현실에서 개개인들도 각자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페스티벌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배우고, 그 과정을 직접 실습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신청은 4월 11일 저녁 7시 30분까지 명상상담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www.medicoun.com)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02-2236-5306

김내영 기자

동국대 열린전공학부 불교동아리 '무념무상' 창립

4월 1일 정각원서 창립법회 봉행
돈관 스님, 기금 1000만원 전달



올해 신설된 동국대 열린전공학부에 새로운 불교동아리가 창립됐다. 이로써 동국대는 서울캠퍼스와 와이즈캠퍼스에 24개의 불교동아리가 활동하는 명실상부한 대학생 전법의 중심 대학이 됐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4월 1일 교내 정각원에서 열린전공학부 불교동아리 '무념무상'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사장 돈관 스님은 불교동아리 창립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며 "열린전공학부 불교동아리 '무념무상'이 올해 새로 창립된 만큼 24채의 집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힘차게 활동하는 동아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재웅 총장은 "열린전공학부 신입생이자 불교동아리에 가입한 여러분들을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김시완 열린전공학부 불교동아리 초대 회장은 동아리의 활동 목표를 "학우들이 전공을 확정하기 전 불교의 가르침과 문화를 경험하고 지혜를 쌓는 것"이라고 밝히며, "진리에 대한 논설방식이 시대에 따라 변모했듯이, 대학생들이 불교를 자칫 고리타분하거나 가볍게 접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돈관 스님은 이날 창립법회에서 불교동아리 활성화 기금 1000만원과 상월결사 불교동아리 창립지원금 100만원을 함께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청년 대상 '선명상 템플스테이 특별 주간'

문화사업단, 4월 20일까지
20~30대 청년 1만원에 체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4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선명상 템플스테이 특별 주간'을 운영한다.

조계종이 4월 1일부터 5월 5일 부처님오신날까지를 '불교의 달, 마음 평안의 달'로 정해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는 것과 연계한 행사다.

이번 특별 주간은 전국 47개 선명상 템플스테이 시범운영 사찰에서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년 2500여 명에게 참가비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다. 내·외국인 20~30대 청년(1986년~2006년생)이면 참가비 1만원으로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경험할 수 있다.

선명상 템플스테이에서는 참선을 포함해 걷기명상, 좌선명상, 호흡명상, 소리명상, 차명상, 싱잉볼명상 등 다양한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학업 및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많은 청년이 선명상 체험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아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가능하다.

김내영 기자

캄보디아 어린이에 교복·책가방 지원

비로자나국제선원, 기증식 성료



비로자나국제선원이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교육 물품을 지원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 스님)과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3월 25일 캄보디아 꺼우깍-비로자나 초등학교에서 교복·책가방·체육복 기증식을 진행했다.〈사진〉 기증식에는 학교장과 전교생, 지역 공무원, 로터스월드 센 나렌(Sen Naren)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전교생을 대표해 발언한 4학년 소반나 보파(Sovanna Bospa) 학생은 "비로자나국제선원에서 학교를 세워주고 매년 교복과 학용품까지 지원해 주신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꺼우깍-비로자나 초등학교는 2022년 4월 비로자나국제선원의 후원으로 개교해 20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박수현 수습기자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10월 북경서

3월 26일, 삼국 예비회의 개최



제2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가 '초심을 잊지 말고 미래를 함께 열어 나아가자-새로운 한·중·일 삼국 불교의 친선교류'를 주제로 10월 18~20일 북경에서 개최된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는 3월 26일 중국 안후이성 안칭시에서 '제2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중국대회를 위한 3국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대회의 공식 주제, 장소와 시기 등을 최종 합의했다.〈사진〉

한국 측 단장 진호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원융종 총무원장)은 "30년간 한중일 불교계가 깊은 유대를 지속해 온 것은 우리 불교계 사부대중 모두의 자랑"이라며 "이러한 성과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를 통한 우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내영 기자

대불청·(주)골드헬스케어, '동행' 업무협약

포교 · 나눔 실천으로 상호협력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길수, 대불청)와 ㈜골드헬스케어가 3월 31일 서울 전법회관 지하 1층 선운당에서 '동행' 업무협약을 진행했다.〈사진〉

협약에 따라 이들은 건강검진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포교와 나눔 실천 사업을 통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박경태 ㈜골드헬스케어 대표는 "향후 대불청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겠다"며 △자비런-나눔걷기 마라톤 △카페 선-선을 행하는 카페 △정진사업-침향단, 통이보감, 생식, 대체육 등 △만해의꿈-합창제, 산사음악회, 뮤지컬, 불교축제 등 △골드팜스-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발생한 사업수익으로 대불청의 재정자립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

어린이·청소년 찬불가 경연대회 열린다

불레협, 제33회 연꽃노래잔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장스님)가 불기 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찬불가 경연대회인 제33회 전국 어린이·청소년 연꽃노래잔치를 개최한다.

만 4세 이상부터 16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찬불가 1곡을 선정(합창은 지정곡 포함)해 독창, 중창, 합창 부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4월 30일까지다. 예선은 독창만 진행하며, 동영상으로 접수해 심사한다.

예선을 통과한 독창 참가자와 중창, 합창 참가팀은 5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는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 진출자는 5월 12일에 발표된다.

김내영 기자

초급부터 고급까지…선명상 법석 펼쳐지다

2025 국제선명상대회 현장

수불 스님 초청 '간화선' 법문
"간화선 있기에 선명상도 있어
공부하라…변화 느낄 수 있다"

'심주 만들기'로 선명상 체험
일감 스님, 토크로 대중 소통
157가지 프로그램들 펼쳐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4월 2일 서울 강남 봉은사 법왕루에서 진행된 국제선명상대회 수불 스님 초청 법회에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간화선에 대해 법문하고 있다.


봉은사 선명상연구소장 일감 스님이 심주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심주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스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불자의 모습.

"한국불교에는 '간화선'이라는 세계적인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명상도 통하고, 템플스테이도 통하는 것입니다. 기둥이 없고, 뿌리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간화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통합니다."

4월 2일 오후 서울 강남 봉은사 법왕루. 간화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간화선' 법문이 폭포수 같이 쏟아졌다.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선 신도들은 합장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법문을 경청했다.

이날 법문은 2025 국제선명상대회 일환으로 진행됐다. 법왕루에서는 깨달음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들이 펼쳐졌다. 수불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4월 4일),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4월 6일), 해인사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4월 3일) 등이 법문과 강의를 진행했다.

첫 시작을 알린 수불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공부의 중요성, 화두 참구 방법 등을 대중들에게 전했다.

간화선을 창시한 대혜 종고 스님의 구도 과정을 되짚은 수불 스님은 "조사선은 화두와 공안을 같이 본다. 그렇지만 간화선은 정형화된 공안이 있다. 간화선은 이 공안을 통해 의심을 일으킨다"면서 "조사선이 상근기·상상근기가 하는 수행이라면, 간화선은 중근기라면 할 수 있다. 대중화 차원에서도 간화선이 조사선보다는 용이하다"고 말했다.

수불 스님은 화두도 '활구'를 들어야 함을 상기하며, 명안종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님은 "화두공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 뜨게 하고 화두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문제는 바로 풀린다"며 "금생(今生)이 미명심(未明心)이면 다음 생은 알 수 없다. 금생에 깨닫기 위해서는 끝까지 공부할 수 있게끔 가르쳐줄 수 있는 길 안내자, 눈 밝은 선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불 스님은 우선 공부를 시작할 것을 권했다. 스님은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가라앉는다. 명상은 가라앉히는 공부"라면서 "당장 마음이 시끄러운데, 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명상은 해야 한다. 명상은 부처님께서 만드신 수행법인데 이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명상을 통해서 기초를 다잡고 선지식 만나서 각오가 됐으면, 화두 타파하기 위한 자기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공부를 해보면 황금 보배로도 살 수 없는 변화가 옴을 알게 된다. 부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 봉사가 눈을 뜨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왕루의 법회와 강의들이 고수들을 위한 심화·고급 클래스였다면, 미륵광장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초심·입문 클래스였다. 봉은사 선명상연구소장 일감 스님은 4월 2일 오후 미륵광장에서 '심주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심주 만들기'는 이번 국제선명상대회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자신만의 화두와 서원을 담은 명상 아이템을 만들고 선명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일감 스님은 참여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소통하며, 대중들이 스스로의 상황을 돌아보고 사유하게끔 도와 눈길을 끌었다.

'심주 만들기' 프로그램은 4월 3일 오후 1시 박희승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지도교수, 4월 4일·4월 5일 오후 12시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 등의 지도로 진행됐다.

이밖에도 보우당에서는 싱잉볼 바디테이션, 사찰음식 체험, 태국 담마까야 명상체험 등 치유에 초점을 맞춘 선명상들이 소개되며, 선불당에서는 108배 절 선명상, 이숨 선요가, 아로마요가 등 집중에 도움이 되는 선명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또한, 미륵전과 법왕루 야외 공간, 매화당 데크 등까지 봉은사 곳곳에서는 총157가지 선명상 프로그램들이 공간의 컨셉에 맞춰 대중들을 맞이했다.

입문부터 심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중들의 호응도 좋았다. 박찬국 밝은사람연구소장은 "수불 스님의 법문을 듣고자 봉은사를 찾았다. 화두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한국불교 수행 문제에 대한 지적까지 담긴 법문에 큰 울림이 있었다"며 "올해 연구소가 준비하는 세미나 주제가 '수행'인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에서 봉은사를 찾은 박보연(진공심) 씨는 "훌륭한 스님들을 만날 수 있음에 절로 환희심이 생긴다. 매일 법회에 참석하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국제선명상대회-주한대사 한국불교문화교류

선명상·사찰음식 체험 주한대사
"마음 평안·세계 평화" 발원

4월 3일 봉은사서 체험행사
15개국 주한대사들 참석
정관 스님, 사찰음식 시연도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주한 외국 대사들이 선명상을 체험하고 사찰음식을 맛보며 한국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3일 서울 봉은사에서 '주한 외국 대사 초청 한국불교문화교류'를 개최했다.

2025 국제선명상대회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중국, 인도, 네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스위스,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멕시코, 온두라스, 이탈리아, 에콰도르, 이스라엘, 베트남, 스리랑카 등 15개국 주한 대사들 참석했다.

행사는 '선명상' 체험으로 시작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봉은사 경내 전통문화체험관 구생원에서 선명상을 직접 지도하며 마음 평안을 안내했다. 스님은 먼저 "한국 고유의 선 수행에 명상을 더한 선명상은 마음의 궁극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최고의 명상"이라며 "'화두' 혹은 '간화선'이라고도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 진관사 명상센터장 혜주 스님이 구체적으로 명상하는 법을 알려주며 선명상의 세계로 이끌었다. 동참자들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로운 순간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선명상 체험 후에는 사찰음식을 맛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하며 한국 사찰음식을 전세계적으로 대중화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는 정관 스님은 "정식 발우공양이 아닌 약식으로 준비됐지만 마음 속에 사찰음식에 담긴 의미를 알아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차조완두콩밥, 생콩가루 쑥국, 천진암 감말랭이와 오이양념무침, 발효 배추김치, 5년 숙성 무장아찌와 초석잠 장아찌, 표고버섯 조청조림, 봄 울진 갯방풍 나물, 씀바귀 된장무침, 봄 두릅전, 청도 불미나리 녹두전, 능이버섯 채소만두 등이 대사들에게 전해졌다.

1700여 년의 한국불교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전통음식이자 수행음식인 사찰음식을 맛본 대사들은 입을 모아 "아름다운 경험"이라고 말했다.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주한 스위스 대사는"명상하고 함께 음식을 나눈 자체가 소중한 것"이라면서 "불교가 중요시 하는 마음챙김을 통해 생명의 고귀함과 돌봄 정신을 배웠고 음식을 준비하고 취하는 과정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생명의 가치를 배웠다"고 감동을 전했다.

사찰음식에 앞서 체험한 선명상에 대해서도 깊은 감명을 표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우크라이나 대사는 "현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가치는 평화"라면서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가르치는 불교의 전통이 귀하다.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탄 대사는 "최근 부탄은 국가적으로 마음챙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오늘 선명상과 사찰음식을 체험하며 한국과 이어갈 교류협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임은호 기자



주한대사들이 사찰음식으로 발우공양하며 불교의 수행정신을 체험했다.



부산연등회, 4월 18일 송상현광장서 개막

무형문화유산 등재 목표로
5월 9일까지 프로그램 다채
소원등 수익, 나눔으로 회향
석산 스님 "공적 가치로 인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지난해 열린 부산연등회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시민의 안녕과 자비를 기원하는 '2569부산연등회'가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송상현광장과 부산시민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연등회는 오랜 기간 축적해온 전통과 문화적 가치 위에, 부산시 무형문화유산 등재라는 목표를 향해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간다.

부산불교연합회는 4월 2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등회의 전체 일정과 문화유산 등재 추진 경과 등을 공유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석산 스님은 "2569부산연등회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부산불교계의 정신과 문화, 시민들의 바람이 담긴 전통"이라며 "이제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도적 보호와 계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등 제작, 관불의식, 육법공양, 느티떡 전승회 등은 무형문화유산의 요건을 갖춘 문화 행위들"이라며 "그동안 이를 다듬고 축적해 온 만큼, 이제는 공적 가치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부산연등회는 축제성과 의례성을 함께 지닌 지역 대표 불교문화행사로, 시민과 불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며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점등식은 4월 18일 오후 7시 송상현광장에서 열린다. 점등식, 호기놀이, 간이 연등행렬 등으로 구성되며, 시민들에게는 소원등 달기 체험도 제공된다.

송상현광장에서는 5월 6일까지 부산연등문화제가 이어지며, 전통등 전시와 문화체험, 무차만발공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4월 26일 오후 4시 부산시민공원에서는 부산연등회 본행사가 개최된다. 이날은 연희단 경연무대 '어울림한마당'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관불의식, 봉축대회, 연등행렬이 진행된다.

'소원등 달기' 체험 수익금은 매년 자비나눔 기금으로 사용돼 왔다. 올해는 산불 피해 지역 혹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단체 등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회는 "무엇보다 시민의 정성과 뜻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행사 중 SNS에 참여 인증사진을 게시하면 LG 스탠바이미 TV, 다이슨 드라이기, 갤럭시워치7 등이 증정되는 SNS 공모전도 이뤄진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번 연등회가 부산의 정신과 문화를 잇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며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이 여정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일정 및 참가 신청은 부산불교연합회 홈페이지(www.bba48.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

3월 28일, 범어사 금강계단
92명 비구·비구니 스님 탄생


조계종 제4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92명의 수계자가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제4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을 통해 총 92명의 비구·비구니 스님이 새롭게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 조계종 계단위원회는 3월 28일 금정총림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지난 8박 9일간 진행된 구족계 수계산림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로써 사미 68명과 식차마나니 24명 등 총 92명의 수계자가 구족계를 수지하게 됐다.

수계산림은 3월 20일부터 시작해 28일까지 이어졌으며, 수계자들은 예불과 참회, 경전 독송, 계율과 의궤 학습 등 엄정한 수행과정을 통해 출가자의 자격을 갖췄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회향사에서 "출가의 길은 간절한 구도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깨달음의 여정이며, 모든 생명을 구제하고자 하는 전법의 길"이라고 밝히고 "오늘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비구니 스님들은 수행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계율과 청규를 엄수하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1700년을 이어온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정신은 바로 이러한 계율행에서 비롯되었으며, 여러분은 그 전통을 계승한 종단의 일원으로서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구족계는 출가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며, 깨어있는 삶을 향한 등불과 같다"며 "수계자들이 바른 신심과 원력을 바탕으로 수행 정진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전계대화상 태허 무관 대종사를 비롯해 교수아사리 수진 스님, 갈마아사리 수불 스님, 존증아사리 지운, 경성, 덕문, 효명, 서봉, 대경, 경암 스님 등이 3사 7증사로 계단을 증명했다.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는 수계자들에게 "불조의 혜명을 잇는 대중으로서 계율을 생명처럼 지니고 전법교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역 어르신 초청 '효잔치'

4월 1일, 공동체 회복 기원
혜도 스님 "치유 씨앗 되길"

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산불 피해로 마음까지 상처 입은 이웃을 생각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4월 1일 선원 내 마음강당에서 '2025 한마음 어르신 효잔치'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혜도 스님을 비롯해 김기재 영도구청장, 양준모 부산시의회 의원, 최찬훈 영도구의회 의장, 김기탁 부의장, 김정현 영도시니어클럽 관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원장 혜도 스님은 기념사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르신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며 "최근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온 국민의 마음이 무거운 시기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치유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항상 지역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는 혜도 스님과 한마음선원 신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점심공양 이후 진행된 무대는 이수연 명창의 판소리 공연, 아코디언 연주자로 봉사활동을 펼쳐온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신도 김종희 거사의 아코디언 연주로 흥을 더했다. 또 가수 홍자연은 트로트 무대로 어르신들과 함께 손을 맞잡으며 위안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효잔치는 지원장 혜도 스님의 오랜 염원이 실현된 자리로,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불교의 효 사상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한마음 어르신 효잔치는 지역 복지기관 및 시니어클럽과 연계해 다양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불련 부산지부, '릴렉스 토크콘서트' 개최

3월 28일, 안국선원 교육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가 대학생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불교의 시선으로 조명하며, 삶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불련 부산지부(지부장 조석주)는 3월 28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 시원암에서 '대학생 마음관리 프로젝트 – 릴렉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진로,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불교적 관점으로 함께 풀어보며,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 안도 스님을 비롯해 시원암 주지 도진 스님, 부산대 지도법사 법진 스님, 해피법당 지도법사 해피 스님, 대불련 동문 및 부산지역 10개 대학 불교동아리 소속 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돈, 성공, 행복…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안도 스님은 "좋은 직장이나 높은 연봉, 사회적 인정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행복은 외부 조건보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조석주 지부장은 "요즘 대학생들에게 전통 법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며 "불교의 따뜻한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문화와 소통 중심의 새로운 시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제125회 보살계 수계산림 봉행

4월 11일~12일 보제루 금강계단서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오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보제루 금강계단에서 '제125회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범어사 보살계는 1901년부터 124년간 이어져 온 우리나라 대표 보살계 법석으로,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불자가 동참해 부처님의 계율을 새기고 실천의 서원을 다지는 자리다. 올해도 수계 인연을 찾는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계산림은 4월 11일 오전 10시 입재를 시작으로 정근과 법문 등이 진행되며 다음 날인 12일 오전 10시 회향한다.

범어사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계(戒)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하신 가르침을 따라, 지계의 인연공덕을 되새기고자 이번 수계산림을 봉행한다"며 "수계는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는 일이자, 자비광명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는 곧 해탈의 열쇠이자 수행의 중심이며, 계를 지키는 삶은 부처님 법 속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이라며 "이번 수계법석을 통해 보살의 삶을 서원하고 그 공덕으로 성불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접수는 범어사 원주실과 각 말사(암자)를 통해 가능하다. 051)508-3636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파라미타, 신입회원 환영회·발대식

3월 29일, 범어사 보제루서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정오 스님)가 3월 29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2025학년도 신입회원 환영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매년 신입회원 환영회 및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과 수행 중심 교육을 지원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발대식은 총재 정오 스님, 지도법사 해공 스님, 백명숙 협회장, 김석조 전 부산시의장, 왕선자 부산파라미타 운영위원, 김경희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회장 등 주요 내빈과 부산 지역 중·고등학생 파라미타 소속 학생 300여 명 및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대식에서는 지도교사 및 학생대표에게 임명장도 수여됐다. 지도교사 임명장 수여 대상자는 김서원(한얼고), 강지나(해동중) 교사였으며, 학생대표 임명장은 △고등부 회장 이지환, 부회장 문혜림 △중등부 회장 예서경, 부회장 이승진 학생에게 각각 수여됐다.

총재 정오 스님은 "스스로 경험한 것만큼 좋은 배움은 없다. 파라미타 활동은 여러분이 성장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소중한 등불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갖고 마음자리가 깊은 사람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원각사, '환경사랑 초록음악회' 연다

4월 19일, 불무도 공연 등 다채

조계종 대원각사(주지 안도 스님)는 오는 4월 19일 오후 1시 해운대 장산 대원각사 경내에서 '2025 환경사랑 자연사랑 초록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을 문화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환경사랑·자연사랑 활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식물을 위한 천도재가 봉행돼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려진다. 이어 2부에서는 다도·불무도 공연을 비롯해 한여울 오케스트라와 여여한 중창단의 무대, 경기민요(이소정), 아일랜드 가수 코너(Conor)의 팝송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부대행사로는 먹거리 장터와 어린이를 위한 환경사랑 체험부스도 마련돼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대원각사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010-2113-8805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해동중, 녹색학교 협약 체결

3월 27일, 학교 내 회의실



해동중학교(교장 김종호)가 3월 27일 학교 내 회의실에서 부산불교환경연대와 '녹색학교 협약식'을 체결하고, 환경보호 실천과 청소년 환경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협약식에는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과 김종호 해동중 교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식 체결과 현판식을 가지며 환경운동 실천을 발원했다.〈사진〉

김종호 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자연에 대한 경각심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부산불교환경연대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환경교육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동중은 녹색학교 협약식을 통해 환경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일회용 사용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 △환경교육 프로그램 △녹색학교 확산 지원 등을 실천할 예정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백양사 고불매, 봄빛 속 '禪' 피우다

3월 29~30일 '선·매·향'의 장
선명상·사찰음식 체험 '풍성'
무공 스님 "선향 느끼는 계기"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는 3월 29~30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2025 백양사 고불매 축제 선·매·향(禪·梅·香)'을 봉행했다.

봄의 길목에서 천년고찰 백양사에 다홍빛 매화가 피어났다. 수백 년 세월을 품은 고불매 아래, 향기로운 꽃과 고요한 선명상이 어우러진 '선·매·향(禪·梅·香)'의 장이 열렸다. 고불매 앞에서 불교의 정신과 자연의 미학을 담은 특별한 봄 축제가 펼쳐졌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3월 29~30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2025 백양사 고불매 축제 선·매·향(禪·梅·香)'을 봉행했다.

올해 첫 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수령 350여 년을 자랑하는 천연기념물 '고불매'의 개화를 기념하며 선(禪)과 매화, 그리고 향(香)을 주제로 한 선명상 체험과 전통문화 행사가 어우러진 특별한 자리였다.

백양사 고불매는 백양사 대웅전 맞은 편에 위치한 수령 약 350년의 홍매화 나무다. 매년 봄마다 담홍색 꽃을 피우는 고고한 자태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강릉 오죽헌 율곡매, 구례 화엄사 화엄매, 순천 선암사 선암매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매화로 손꼽히며 200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고불매'라는 이름은 1947년 백양사에서 부처님의 원력을 기리기 위해 결성된 '고불총림'에서 유래됐다. 이 매화는 선비와 수행자들에게 청렴과 인내, 깨달음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무공 스님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400년 세월을 살아온 고불매는 기후에 예민하게 반응해 꽃을 피우는 지혜로운 존재"라며 "백양사를 찾아준 대중과 함께 봄의 정취 속에서 선과 향을 느끼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제는 선명상과 힐링 음악이 어우러진 '선명상' 프로그램, 도성 스님의 기도법회, 금강 스님의 선명상 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꽃잎이 흩날리는 경내에서 시각·청각·미각이 어우러진 오감 체험을 통해 불교문화를 만끽했다.

특히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이 준비한 도시락, 고불매 빵, 백양사 설화를 바탕으로 한 양 먹이기 체험 등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통차 시음, 영상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고불매는 그 자태와 향기로 호남을 대표하는 매화이자 부처님의 기품을 닮은 상징"이라며 "축제를 통해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제를 축하했다.

이날 선명상을 지도한 일수 스님은 "잠시 자기를 돌아보며 번뇌와 망상,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통불복장교육원, 불복장 전승교육 개강

상·하반기 6개월 간 담양 용화사서 진행



한국불교전통불복장교육원(법주 수진 스님, 용화사 주지)은 4월 2일 전남 담양 용화사에서 2025년도 전통불복장 전수 교육과정을 개강했다.〈사진〉 이날 개강식에는 10여 명의 수강생이 참석해 전통 불복장의 맥을 잇고자 하는 발심을 다졌다.

수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복장을 30~40년간 수행해 오면서 조상경을 연구해 왔지만, 여전히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알기란 쉽지 않다"며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깨우쳐, 우리 불자들에게도 이 깊은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좌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전통불복장 강좌는 1년 과정으로 상·하반기로 나뉘어 각 3개월씩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붓다, 제1차 정기총회 성료

임원 위촉 및 정관 개정…올해 사업계획 심의도



(사)붓다(이사장 진성 스님) 제1차 정기총회가 3월 29일 전주 아리랑하우스에서 개최됐다.〈사진〉 이번 총회는 임명장 수여 및 감사장·공로패 전달을 포함한 1부 공식행사와 2024년 사업실적 보고 및 2025년 사업계획 심의를 중심으로 한 2부 정기총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023년 8월 설립한 이래 많은 분들과 다양한 일을 해왔다"며 "열심히 봉사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사)붓다가 이 자리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미술 거장 호크니 예술, 울산서 만나다

태화강 복합문화공간 만디
8월까지 디지털 전시 진행
'라이트룸' 아시아 첫 전시


울산 태화강 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진행 중인 몰입형 디지털 전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울산 태화강 복합문화공간 만디(MANDI)가 세계적인 현대미술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의 예술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디지털 전시 'Bigger & Closer (not smaller & further away)'를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영국 런던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세계 각국을 순회 중인 몰입형 아트 브랜드 '라이트룸(Lightroom)'의 아시아 최초 전시로, 호크니가 지난 60여 년간 회화·사진·무대디자인·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펼쳐온 예술적 실험을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형태로 선보인다.

전시는 △수영장(POOLS) △원근법 수업(PERSPECTIVE LESSON) 등 총 여섯 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되며, 각 작품은 대형 스크린과 바닥, 벽면 전체에 펼쳐지는 몰입형 영상으로 구현돼 관람객이 작품 안으로 들어간 듯한 특별한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아이패드 드로잉과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창작한 작품들을 관람객이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태화강 복합문화공간 만디를 운영하는 (사)태화복합문화공간 이사장 묵암 지선 스님은 "자연과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태화강변 만디를 울산 시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예술에서 영감을 얻고 치유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장권 예매 및 자세한 정보는 라이트룸울산 공식 홈페이지(www.lightroomulsan.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만디(052-243-4939)로 하면 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륜 스님 "삼론종 정체성 확립하겠다"

삼론종 총무원장 취임법회
3월 27일 서천 천용사서
사부대중 600여 명 운집


삼론종 제11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남륜 스님이 삼론종기를 힘차게 휘두르고 있다.

대한불교삼론종 제11대 총무원장에 남륜 스님이 공식 취임했다. 3월 27일 서천 천용사에서 열린 취임법회에서 남륜 스님은 삼론종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불법의 등불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종단 관계자 및 대덕 스님, 학계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남륜 스님은 취임사에서 "삼론종의 전통과 정신을 바탕으로 종단 화합과 대중 중심의 운영을 이끌겠다"며 삼론종의 교학 전통을 계승하고 수행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의지를 피력했다.

스님은 이어 "세상의 혼돈 속에서 불법을 밝히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삼론에 담긴 심오한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살아 있는 지혜로 전하기 위해 학문적 연구와 교육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정 혜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아침, 벚꽃이 피기 시작한 나무와 산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며 삼론종의 새 출발을 느꼈다"며 "삼론종도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은 이임사에서 "지난 4년간 총무원장 소임을 맡아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종단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남륜 스님은 더욱 활동적이고 역량 있는 분이니, 종도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종단 주요 임원 임명패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신임 임원으로는 총무부장 도광 스님, 문화부장 성화 스님, 재무부장 성혜 스님, 규정부장 명일 스님, 사회부장 도일 스님 등이 임명됐으며, 교육원장 범지 스님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충남 서천=노덕현 기자·사진=유재상 충청지사장

천안 원오사, '한국-베트남 교류 음악회'

3월 30일 충남교육연수원서



베트남 불교 사찰 원오사(주지 팃 뜨엉탄 스님)는 3월 30일 천안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제5회 한국-베트남 문화교류 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원오사 주지 팃 뜨엉탄 스님은 행사에 앞서 산불 피해와 태국·미얀마 지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전 참석자와 함께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스님은 환영사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며 모연을 제안했고, 이에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구호 기금을 모았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선운사, 정호 대종사 77주기 추모다례재

3월 28일 대웅보전 등서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3월 28일 근대 한국불교 선구자인 영호당 정호 대종사 제77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스님들의 다례재를 대웅보전과 부도전에서 봉행했다.〈사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역대 조사들의 큰 뜻을 이어 후학들은 불교 발전과 중흥을 위해 전법 활동에 적극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천불교사암연 봉축 점등식 봉행

3월 29일 시민회관 광장서



제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문 스님)는 3월 29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현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점등식은 각자의 마음 속 자비의 등불을 켜고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고자 하는 희망의 표현"이라며, "한국의 산불과 미얀마·태국의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평택불교사암연 봉축 점등식 봉행

3월 30일 평택역광장서



평택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적문 스님)는 3월 30일 평택역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회장 적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가 피어나기를 바란다"며 "이 시대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이 세상을 밝히고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평택불교사암연합회는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뜻을 모아 마련한 후원금을 평택시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김해불교연합회 봉축 점등식 봉행

시민의 종 광장서



김해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수 스님)는 3월 29일 김해시민의종 광장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김해불교사암연합회장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탑은 부처님 진리를 상징하는 등불로, 어리석음을 걷고 지혜를 밝히는 수행의 길잡이"라며 "절과 탑은 삶의 방향을 찾도록 돕는 공간이다. 날씨가 추움에도 함께해 주신 불자들과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 표충사 제563회 춘계향사

3월 29일 경내 사당서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는 3월 29일 경남 밀양 표충사 경내 사당 앞에서 제563회 춘계향사를 봉행했다.〈사진〉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참해주신 사부대중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리산 등에서 진화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사찰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본분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근석 밀양 부시장은 추모사에서 "표충사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 증심사 무등산 산신대재 봉행

3월 29일 대웅전 앞마당서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 스님)는 3월 29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무등산 산신대재'를 봉행하고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신과 자연에게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사진〉

주지 중현 스님은 법문에서 "우리가 직면한 대형 산불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빚어낸 공업 중생의 과보"라며 "자연 앞에 머리 숙이고 참회해야 한다. 오늘 산신대재는 이 땅의 산신님께 올리는 기도"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주 미륵암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3월 30일 회향법회 봉행



경남 진주 미륵암(주지 현산 스님)는 3월 30일 경내 대웅전에서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증명법사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자는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정성으로 일상이 정갈해야 한다"며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이 결국 내 삶도 아름답게 만든다"고 설했다.

주지 현산 스님은 "이번 불사를 계기로 미륵암이 지역 불자들의 마음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미얀마 강진에 불교계도 인도적 지원 나서

종지협 "희생자 애도"…불교 단체 긴급 모연

여수령 기자 spero0821@naver.com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명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불교계가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4월 1일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는 애도문을 발표했다. 종지협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은 미얀마 국민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 협력해 피해 복구와 인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 구호단체들은 긴급 모금에 나섰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과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성우 스님),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는 지진 피해 지역의 구호와 신속한 복구, 이재민 지원을 위한 모금을 전개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미얀마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긴급 모금을 시작했다"며 "소중한 후원이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지부를 두고 있는 지구촌공생회와 로터스월드, 더프라미스는 현지 피해 상황을 파악해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 복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로터스월드 관계자는 "가장 더운 혹서기에 강진까지 겹쳐 주민들이 극한의 상황에 처했다"며 "시급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주한미얀마문화원(원장 목탁 스님)은 3월 31일 주한미얀마대사관에 구호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목탁 스님은 "미얀마 불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연대의 뜻을 표하고자 작은 정성이나마 보탠다"고 밝혔다. 우딴신 주한미얀마대사는 "지진으로 수많은 사찰이 무너졌고 승급 시험을 보던 어린 스님들 대부분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미얀마 국민들이 한국 불교계가 보내주는 관심과 사랑에 큰 힘을 얻고 있다. 후원금과 물품은 현지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찰을 비롯한 건물이 무너지고 200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제공=주한미얀마대사관



인구 170만명의 도시 만달레이에서는 주택 1만 3400채 이상이 붕괴돼 최소 5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제공=로터스월드

후원

- **아름다운동행** 02-737-9595 농협 301-0366-4563-11
- **지구촌공생회** 02-3409-0303 기업 062-070908-01-011
- **로터스월드** 02-725-4277 농협 301-0058-7941-81
- **더프라미스** 02-735-3119 신한은행 100-027-597795

3월 28일(현지시각) 미얀마 중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진원지인 만달레이 지역에서는 주택, 병원, 학교 등 주요 기반시설이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됐다. 사찰과 탑 등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인구 170만명의 만달레이는 미얀마 제2의 도시이자 3500여 개의 불탑이 세워진 불교 문화의 중심지다. 미 지질조사국(USGS)과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에 따르면 불교사원은 670개, 탑은 290개가 무너졌다. 주택은 1만 3400채 이상, 도로는 30개, 교량은 7개 이상 손상된 상태다.

또 지진 발생 이후에도 지속되는 내전과 무력 충돌로 도로 접근과 물품 공급이 차단돼 구조 활동이 지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적십자연맹(IFRC) 등 국제기구들은 미얀마 강진 피해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을 촉구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印, 발람푸르 불교 순례지 개발 박차

기원정사·슈라바스티 지구 낙후 지역 부흥 기대도 up

기원정사와 슈라바스티(사위성) 유적이 있는 발람푸르 지구를 두고 인도 웃타르 프라데시 주정부가 국제적인 불교 순례지로의 개발에 나서 화제다. 주정부는 3월 30~31일 양일간 국제 불교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개발계획 진행에 나섰다. 지난 3월 23일 인도의 '더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해당 소식을 집중보도했다.

북인도 웃타르 프라데시주의 발람푸르 지구는 기원정사와 사위성 유적이 있어 전세계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나 주에서 낙후된 지역인데다 명성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로 순례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주정부는 이곳을 중요한 불교 순례지로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 국제 문화 및 관광개발을 위한 조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정부와 함께 행사를 기획하는 '바라트 붓다 복지재단'은 3월 30~31일 양일에 걸쳐 '국제 불교문화 관광공원'으로 개발될 부지에서 팔리어 삼장을 독송하고 불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국,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에서 참석했으며 팔리어 삼장 독송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발람푸르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스님들. 사진출처=더 인디안 익스프레스

부처님 생애를 묘사한 불상과 함께 스리랑카에 불교와 보리수 묘목을 전한 비구니 상가미타 스님의 상도 공개됐다. 재단 측은 "상가미타 스님의 상은 불교를 통한 평화의 국제교류를 상징하며, 무엇보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비구니 승가에 존경을 표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언급했다.

주정부 측은 "발람푸르 지구는 불교에서 중요한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라며 "프로젝트를 통해 순례지를 찾는 전세계의 순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진흥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라트 붓다 복지재단의 비서 디바크르 파텔은 "국제 불교문화 관광공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 홍보, 기념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하는 보편적인 불교 순례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단과 주정부 측은 이곳을 진정한 순례지로 만들기 위해 인도 전국과 해외의 주요 순례지에서 가져온 신성한 상징물을 봉안하고 있다. 재단은 현재까지 룸비니(네팔), 보드가야, 쿠시나가르, 슈라바스티, 그리고 스리랑카 등지의 성지에서 흙과 보리수 묘목을 가져와 심었다고해서 '성스러운 흙'과 보리수 어린 나무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국제 불교도 연맹, 미얀마와 불교교류 강화

팔리어 고전 인도어로 인정 후속 "외교·학술·문화협력 이어갈 것"

인도와 미얀마 사이의 불교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 국제 불교도 연맹(IBC)의 고위 대표단이 미얀마를 4일간 방문했다. IBC 사무총장 쟝춥 최댄 린포체가 이끄는 대표단은 미얀마 불교계, 정부 기관, 학계 등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3월 25일, 인도의 '인디안 내러티브'는 양국 간의 불교 교류의 전망에 대해 보도했다.

IB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문은 인도가 2024년 10월, 불교 고전어인 팔리어를 산스크리트어와 함께 공식적으로 고전 인도어로 인정한 데 이어 이루어졌다"면서 "인도 정부의 결정을 통해 이 언어에 대한 학문적, 정신적 관심이 인도에서 되살아났으며, 팔리어 전통이 강하게 남은 미얀마와의 교류도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국제 테라와다 불교 포교대학(ITBMU)을 포함한 미얀마 내의 주요 불교대학을 방문해 잠재적인 교육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또 미얀마 주요 미디어 기업인 스카이넷 붓다채널과 미얀마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미얀마 내러티브와의 토론과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엔 미얀마 종교문화부 장관인 우 틴 우 르윈이 동석했다.



미얀마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인도 국제불교도연맹. 사진출처=국제불교도연맹(IBC)

그 결과 양국 간 불교담론과 지식 공유와 교류강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양측은 팔리어 연구와 불교문화 교류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표단 방문의 주요한 성과는 IBC와 미얀마의 저명한 불교학술기관인 시타구 국제 불교 아카데미(SIBA), 샨 주립 불교 대학(SSBU)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이다. 이 양해각서를 통해 인도와 미얀마 양국은 두 나라 모두에서 불교유산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서 팔리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표단은 미얀마 국가 승가위원회 의장인 칸디마 비왐사 스님을 친견했으며 담마 죠띠 위빠싸나 센터를 방문해 위빠싸나 수행을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가지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표단의 방문은 미얀마 주재 인도 대사인 아바이 타쿠르가 주최한 리셉션으로 마무리 됐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방문과 행사들은 인도와 미얀마 간의 역사 속에 불교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있어 문화적, 학문적 교류가 광범위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IBC측은 "외교적, 학문적 지원은 두 나라의 공유된 불교 유산을 강화하고, 교육, 미디어, 출가자의 사회 참여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낡은 나무 책상위, 고사리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
뭉그러진 연필과 공책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지원 물품 학용품(가방, 노트, 연필, 연필깍기…), 신발, 의약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 02)2004-8214 (홍승도)
캄보디아 현지 방문 1차 : 6월 2차 : 1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애순·금명이 손 글씨, 전부 제 손에서 나왔죠”

인터뷰 ‘폭싹 속았수다’ 손글씨 대역 김윤주 원장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주인공 오애순(아이유, 문소리 분)과 딸 양금명(아이유 분)은 공통점이 있다. 둘 다 말과 글을 다루는 학문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다. 엄마 오애순은 국문학과 진학을 꿈꿨던 문학소녀였고, 딸 양금명은 서울대 영문학과에 진학하며 영문학도가 됐다.

그래서인지 드라마에는 유독 두 모녀의 손 글씨 장면이 많이 나온다. 어린 시절 첫사랑을 이야기하며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 담아 쓴 시부터, 인생 끝자락서 삶을 찬찬히 반추해낸 시집까지. 이처럼 애순의 인생은 글로써 완성된다. 그래서 애순이 써내려간 일생을 담은 시, 이를 기록한 손 글씨가 나오는 장면은 짧지만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애순과 금명의 손 글씨 대역을 맡은 주인공이 최연소 조계종 여성불자회 회원이자 전문 서예작가인 김윤주 감성꼴 서예원 원장(39)이다.

4월 1일 서울 서초구 감성꼴 서예원에서 만난 김윤주 원장은 “2년 전 촬영했던 드라마였는데, 너무 인기가 높아 감회가 새롭다”고 말머리를 풀었다.

김윤주 원장은 경기대에서 서예를 전공한 전문 작가다.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은사의 소개로 영화·드라마 소품 제작과 서예 손 글씨 대역을 시작하게 됐다.

“은사님이 송민 이주형 선생님인데, 사극 자문위원을 많이 하셨어요. 은사님 소개로 처음 참여한 작품이 JTBC 사극 〈인수대비〉(2011)였습니다. 여기서는 배우 채시라 씨의 손 글씨 대역을 맡았죠. 이후 영화 〈강릉〉 타이틀 글씨나 〈기방도령〉의 소품 제작에도 참여했죠.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손 글씨 대역도 이런 인연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윤주 원장이 〈폭싹 속았수다〉 손 글씨 대역으로 참여한 것도 은사의 소개였다. 드라마 제작팀에서 애순과 금명의 손 글씨 대역 섭외를 은사에게 문의했고, 이에 은사는 김윤주 원장을 연결시켜줬다.

“감독·작가님이 가진 레퍼런스(창작물 제작 시 참조자료)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를 글씨를 써서 보냈어요. 이를 보고 감독·작가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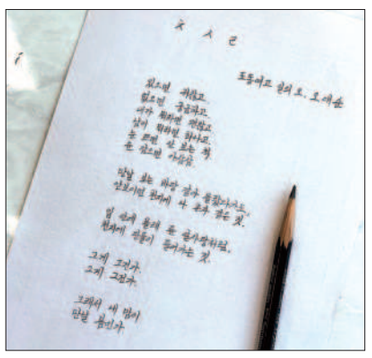
레퍼런스의 내용이 궁금해 묻자, 김윤주 원장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감독님의 어머니 글씨였다”고 말했다.



극 중 애순이가 원고지에 시를 쓰는 장면. 김윤주 원장이 대역을 맡았다.

‘폭싹 속았수다’ 감독뫂 글씨
모체로 애순이 글씨체 완성해
“옛날 펜글씨 교본 섭렵했죠”

최연소 조계종 여성불자회원
불교 · 서예, 어머니 영향 받아
“손글씨 관심, 서예 이어지길”



애순이가 쓴 시 ‘ᄎᆞᄉᆞᄅᆞ(첫사랑)’, 김윤주 원장이 직접 썼다.

“드라마 첫 시작의 배경이 1950~1960년대 제주도이니, 애순의 글씨체도 이를 반영해야 했어요. 그래서 애순의 글씨는 한글의 궁서 정자체로 세로획이 꺾이는 느낌을 넣었습니다. 애순의 글씨체를 완성하기 위해 옛날 펜글씨 교본들도 많이 참조했어요. 극 후반부, 애순이가 시집을 채우는 장면에서는 글씨를 옛날 궁서체보다 조금 더 유려한 느낌으로 썼어요. 삶이 완숙해진 느낌을 주려고 했죠. 금명의 글씨도 달라요. 현대 학생의 느낌이죠. 손 글씨의 매력을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이 알았으면 해요. 이 관심이 서예로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광례-애순-금명으로 이어지는 유전(遺傳)이 극의 한 축이듯 김윤주 원장이 서예를 업으로 삼고, 불교 신앙을 이어가는 것도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김윤주 원장은 외할아버지가 서예가셨고 어머니도 서예에 일가견이 있었다.

“어머니와 오빠는 서예를 하는데 저는 어리다고 안 시켜줬어요. 어린 마음에 서예가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서예를 가르쳐주셨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후로는 계속 서예를 해왔습니다. 사춘기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를 조금 보냈는데 그때마다 저를 잡아준 것도 서예였습니다. 화선지, 붓, 먹과 마주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불교 역시 불심이 신실한 어머니로부터 이어졌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불국사, 석굴암 등을 다니며 신심을 키웠다. 같은 서예학도로 인연이 돼 부부의 연을 맺은 남편은 이근혁 조계종 중앙신도회 팀장이다. 남양주에 사는 부부는 주말에는 아이들과 봉선사를 찾는 것이 일상이다. 서예작가가 본업인 만큼 신행도 ‘사경’이다.

“저는 작품에서 〈반야심경〉을 다양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 사경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지러우면 법정 스님의 법문 영상도 많이 시청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전통을 공부해 새로운 제 것을 찾고 싶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 종로에서 한문 고전을 배우고 있다.

“오리지널을 만들려면 전통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통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5~10년을 진득하게 공부해 제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려 합니다. 저만의 서예를 하고 싶다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애순 · 금명의 손 글씨 대역을 맡은 김윤주 감성꼴 서예원장. 최연소 조계종 여성불자회원이기도 하다.

괘불탱 조사 10년 결실
10번째 조사보고서 발간

국가유산청 · 성보문화유산硏
무량사 괘불탱 등 5건 조사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야외에서 봉행되는 대규모 불교의식을 위해 제작된 대형불화, 괘불탱에 대한 10번째 정밀조사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사)성보문화유산연구원(원장 송천 스님)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2024년 성과를 담은 열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불교회화(불화)는 재료적 취약성과 각종 재해로 인한 손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화유산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대형불화는 그 무게나 크기로 인해 출납과 이동이 어려워 다른 회화 문화유산에 비해 보존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대형불화의 원형자료(채색정보 등)와 보존현황에 대한 조사를 지난 2015년부터 성보문화유산연구원과 10년 동안 연차별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조사한 괘불도는 ‘청량산 괘불탱’ ‘무량사 미륵불 괘불탱’ ‘하동 쌍계사 괘불도’ ‘남해 용문사 괘불탱’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탱’ 총 5건의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인문학적 조사와 과학적 조사를 함께 실시했으며, 삽화로 제작한 도면 등 디지털 자료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청량산 괘불탱’과 ‘하동 쌍계사 괘불도’의 테두리에 기록된 범자(梵字)를 확인·판독해 도판과 함께 보고서에 수록했으며, ‘남해 용문사 괘불탱’의 경우 석가모니불과 보살의 옷 문양과 보살의 장신구에 고분(高粉) 기법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무량사 미륵불 괘불탱’은 미륵불을 본존으로 그린 괘불도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1627년)의 작품으로, 현재 국보 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밀조사 보고서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10년간의 괘불도 조사 결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불화 보존관리 지침서〉도 발간했다. 이 지침서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와 함께 괘불을 소장하고 있는 사찰과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향후 괘불도 보존·관리에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과 성보문화유산연구원의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은 이번 보고서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회향했다. 10년간의 조사사업을 통해 총 9건의 괘불도가 보물로 지정되는 등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부터는 대형불화의 다른 종류인 후불도에 대한 정밀조사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불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불화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를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2024년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통도사 학장 인해 스님과 동학사 학장 명오 스님의 출가 이야기



승려의 삶을 사는 내내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입은
옷이 불편하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디 자신의 인연에 꼭 맞는 옷을 찾아
입으며 참된 나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행히 여기에 내 옷이 있었다.

인해

스물 네 살의 청춘,
그 좋은 나이에 출가했다.
출가를 방해하는 여러 핑계를
나의 발심發心이 이겼다. 출가 생활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절은 상상 이상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었고, 스님들은
멋스러웠다. 자유와 행복, 출가의 백미이다.

명오

글 인해, 명오|17,500원|296쪽

인해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해인사 강원과 조계종립승가대학원을 졸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초대 이사장, 동국대학교, 해인사, 수덕사, 동화사 승가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저서는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우리말 법화경》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남종의 선사상 연구〉,〈혜능의 좌선관〉외 다수가 있다. 제3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였다.

명오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선학과·영문학과(학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종교학과 석사, 은해사 조계종립승가대학원 수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역서《대승기신론열망소》로 제1회 반야학술상 저역상, 저서《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로 제19회 불교출판문화상에서 올해의 불서 10 선정 및 붓다북 학술상을 수상했다. 논문은〈초기불교 병인론과 대승불교 사경 공덕 및 심신치유에 관한 연구〉,〈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열반경》에 나타난 재가불자의 계율 사상 연구〉등 다수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4/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부처님의당부:초기경전에서선별한지혜의말씀	비구 보디/등현 감수	사유수
2	크리스천과함께읽는금강경(양장)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3	니까야강독2(초기불전006)교학과수행	각묵,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5	초기불교입문:초기불교핵심을담다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6	무문관에서꽃이되다	탄하삼성/최만희 편저	운주사
7	초역부처의말(2500년동안사랑받은)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8	불멸(3)아무래도아무렇지않은	이각	지혜의눈
9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10	낡은옷을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6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책세상

“기후위기는 환경문제가 아니다”



거룩한 불편
유정길 지음
모과나무 / 2만원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10년 만에 칼럼집 내고 ‘전환운동’ 역설
불교의 녹색화…‘무소유 마켓’ 제안

여수령 기자 spero0821@naver.com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사람이 있다. 유정길. 불교계에서 그의 이름은 곧 ‘환경운동’으로 읽힌다. 정토회에서 불교 공부와 수행을 시작한 그는 산하 환경기구인 에코붓다에서 ‘빈그릇운동’과 같은 생태적 대안 실천운동을 전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 전 세계 긴급구호 활동, 남북한 평화 활동을 거쳐 2015년부터 수경 스님의 요청으로 불교환경연대 비상대책위원장,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녹색불교연구소장, 60+기후행동 운영위원, 생태전환지원재단 이사,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 환경과미래포럼 공동대표 등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소임을 맡고 있다.

대형 재난은 기후위기의 증상

2013년 〈생태사회와 녹색불교〉를 통해 ‘생명·평화로의 전환’을 설파했던 유 대표가 10년 만에 펴낸 칼럼집 〈거룩한 불편〉은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생태사회’를 만들기 위해 쓴 글을 모은 책이다. 책에 담긴 44편의 글을 통해 그가 주장하는 바는 단 하나.

“기후위기는 환경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위기는 그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와 철학적 가치, 우주적인 각성을 요구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4월 2일 불교환경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유 대표는 근래 전 지구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지진, 홍수 같은 대형 재난을 ‘기후위기의 증상’으로 꼽았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징후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기후 문제, 탄소 중립 문제가 이토록 시급한 상황인데도 세계 지도자들은 유엔에서 만날 때만 위급하다고 주장할 뿐, 자국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성장 우선의 정책을 취합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지속가능한 성장’ 역시 허구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본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은 ‘지속 불가능한 발전’을 해온 인류가 지금까지의 삶을 통렬하게 참회하고 반성한 뒤, 그러한 과거와 단절하고 전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용어”라며 “그런데 지금은 자연환경만 잘 고려하면 기후위기는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착시를 갖게 하는 용어로 그 뜻이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성장 위주 정책이 산불 피해 키워

최근 발생한 영남 지역 대형 산불도 성장 위주의 산림 정책이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흔히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지목하지만, 세금을 들여 활엽수를 베어내고 도로를 만드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 또한 피해를 키운다는 주장이다.

“우리 산은 물이 많은 활엽수와 건조한 침엽수가 다양하게 자라는 혼합림입니다. 그런데 산불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사찰 주변의 활엽수를 베어내고 송진 성분으로 불이 쉽게 붙는 소나무만 남겨 놓으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 중심, 성장 중심의 사고방식이 피해를 키운 셈이지요.”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유정길 대표는 사찰이 무소유 마켓과 한끼 채식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 환경 실천 운동의 구심점이 되어 주길 당부했다. 사진은 불교환경연대와 신대승네트워크의 채식 나눔 ‘수요밥상’.
현대불교 자료사진

자연과 이웃 살피는 ‘소욕지족’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성장과 개발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환경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성장이 아닌 성숙을 추구하는 ‘대사회적 전환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다고 유 대표는 말한다.

“기후위기는 일종의 증상입니다.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증상만 문제 삼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죠. 오늘날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속도와 경쟁이 아닌 자연과 생명과 이웃을 살피며 천천히 사는 여유로움, 편익과 편리가 아닌 거룩한 불편, 자발적인 ‘맑은 가난’의 삶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 청빈하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친환경적 삶을 당부하는 유 대표는 “청빈한 삶은 정신의 풍요로움, 마음의 넉넉함에서 나온다. 마음공부를 통해 항상 자신을 살피고, 욕망에 기초한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과 기도를 일상화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의 힘이 바로 생태적 삶의 기본 동력”이라고 말한다.

안 쓰는 물건 나누는 ‘사찰 무소유 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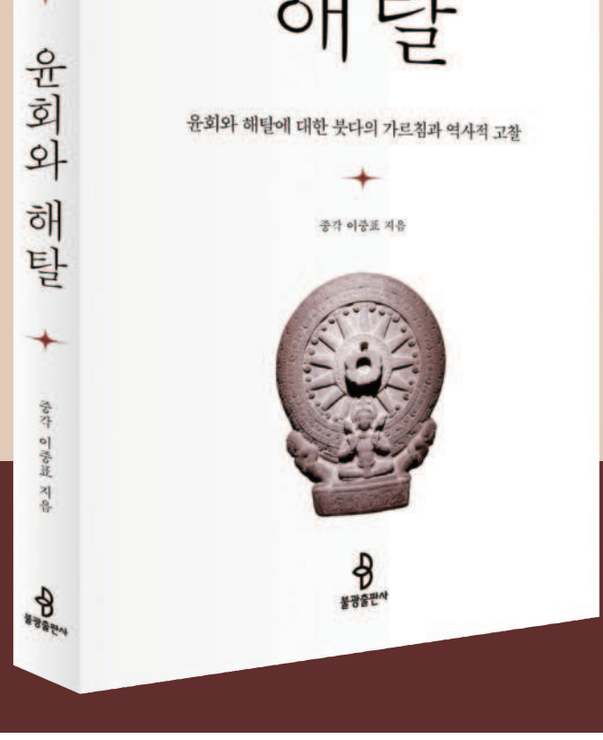
사찰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으로는 ‘무소유 마켓’을 제안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사찰에 기부하고 서로 나누는 장터다. 이를 통해 자원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물건=돈’이라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 또 사찰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빈그릇운동 실천하기, 한 끼 채식하기 등 다양한 환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불교의 녹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당부했다.

“환경 실천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룩한 불편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자이크 붓다’가 될 때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할 희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윤회는 있는가, 없는가’
‘윤회는 불교인가, 불교가 아닌가’

윤회에 대한 모든 의문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명쾌한 해설!

한국불교계의 대표 석학이자 수행자,
중각 이중표 교수가 붓다의 직설(直說)인 근본경전을 바탕으로 살핀
붓다가 가르친 ‘윤회’와 ‘해탈’의 길



윤회와
해탈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과
역사적 고찰

윤회와 해탈

중각 이중표 지음
224쪽
17,000원



“어떤 이들은 붓다는 당시의 인도인들이 믿는 윤회설을 방편으로 수용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붓다 당시의 인도에는 다양한 윤회설이 있었다.
그렇다면 붓다는 어떤 윤회설을 수용했다는 것인가? (……)
붓다도 윤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윤회설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회라는 생각 자체가 연기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사견(邪見)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_ 본문 중에서

출간 즉시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중각 이중표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석학으로서, 현재 불교 신행단체 ‘붓다나라’를 설립하여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붓다의 가르침을 한 권으로 집약한 한글 경전인 『불경』을 비롯하여 ‘정선(精選) 니까야 시리즈(전 4권)’, 『인간 붓다』, 『붓다의 철학』, 『불교란 무엇인가』,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등이 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우리 시대 언어로 다시 만나는 경허록·만공법어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경허록 · 만공법어 편찬위원회,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편찬한 〈경허록〉 〈만공법어〉 〈경허만공신출자료집-경허 선사편〉 〈경허만공신출자료집-만공 선사편〉.(사진 왼쪽부터)



경허록 · 만공법어 편찬위원회 상임위원장 도신 스님과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주경 스님이 4월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4종 증보 출간

편찬위, 전자불전연구소와 협업

'경허 · 만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와 그의 법맥을 이어 간화선을 다시 뿌리내리게 했던 선지식 만공 선사의 가르침을 담은 법어집이 우리 시대 언어로 다시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과 경허록·만공법어 편찬위원회(상임위원장 도신 스님),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주경 스님)는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편찬한 〈경허록〉, 〈만공 법어〉 등 도서 4종과 추진 중인 '경허·만공 디지털 아카이브(鏡·虛·滿·空)'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상반기 경허록·만공법어 편찬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 해 9월 수덕사와 불교학술원 간 '경허·만공 법어집 증보 간행 및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업무협약'이 체결되며 편찬에 급물살을 탔다.

편찬위원회는 해인사·통도사성보박물관, 수덕사근역성보관 등을 방문 조사해 경허 선사와 만공 선사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토대로 〈경허록〉 편찬과 〈만공법어〉 증보를 완료했다. 또한 새롭게 발견된 자료들을 묶어 〈경허만공신출자료집-경허 선사편〉과 〈경허만공신출자료집-만공 선사편〉을 발간했다.

새로 편찬된 〈경허록〉은 경허 선사의 글 중 선사상의 핵심이 드러나는 작품을 선별해 조사 어록의 체계로 편찬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경허집〉이 경허 선사의 기록 자료들을 모두 모으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경허록〉은 조사 어록의 체계에 따라 경허 선사의 선사상을 정선(精選)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만공법어〉는 사실상 개정증보판의 성격이 강하다. 지난 1968년 간행된 초간본 〈만공어록〉과 1982년 간행된 수정·증보판 〈만공법어〉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고, 새롭게 발굴한 자료를 증보했기 때문이다. 한글세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윤문과 교정, 한문 번역 수정 등 전반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한 점도 눈길을 끈다. 또 만공 선사가 남긴 '만공 화상 자답', 중은(重隱) 스님이 쓴 '만공 스님을 추모하며' 등 12편이 새롭게 수록돼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함께 발간된 〈경허만공신출자료집(鏡虛滿空新出資料集)-경허 선사편〉과 〈만공 선사편〉은 새로 발굴된 자료들을 한데 묶은 결과물이다.

〈경허만공신출자료집-경허 선사편〉은 〈호서화상법어(湖西和尙法語)〉(1932년 무심도인 필사), 〈초암자 필사본 경허집(草庵子筆寫本鏡虛集)〉(1912년 초암자 필사), '용은대사행장(龍隱大師行狀)'(1901년 경허 찬술) 등 11편의 자료를 영인해 수록한 자료집이다. 특히 〈호서화상법어〉와 〈초암자 필사본 경허집〉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귀중한 자료로, 기존에 간행된 〈경허집〉의 대교본(對校本)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경허 선사의 법문을 필사해 소장할 정도로 선사의 법문이 당시 대중적 인기가 높았음을 방증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경허만공신출자료집-만공 선사편〉은 만공 선사 관련 옛 기사 30여 건과 친필 자료인 '전법게', 〈현양매구〉 등을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 편찬으로 수덕사 경내에 있는 '송만공대선사구휼송덕비(宋滿空大禪師救恤頌德碑)'의 연원이 1931년임을 확인하는 성과도 있었다.

편찬위원회 상임위원장 도신 스님(수덕사 주지)은 "선의 정수가 담긴 두 선지식의 말씀과 발자취를 확인하며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허·만공 선사의 선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자불전콘텐츠연구소장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새로 편찬·발간된 〈경허록〉 〈만공법어〉가 선불교 정신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경허·만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도 전개한다. 현재 아카이브에는 경허·만공 선사의 생애, 관련 문헌 및 자료, 이미지, 연구 성과가 담겨 있다. 아직 수록되지 않은 자료들은 올해 추가로 탑재할 계획이다.

동아시아 해역사 공동 연구 성과 〈입당오가전〉 학계 최초 역주



승려와 불교의 동아시아 해역 교류

정순일 엮음

경인문화사 / 5만9000원

고대 동아시아의 바다는 교역의 길이자 죽음의 길이었다. 그 길을 스님들은 불교를 배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넘나들었다. 〈승려와 불교의 동아시아 해역 교류〉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5개 지역, 17명의 연구자가 다년간 함께 축적한 최신 연구 성과를 담은 책이다.

그 시절 바닷길만큼이나 출간 과정도 험난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한 원고를 취합해 한국어로 번역했고, 특히 9세기 일본의 승전 자료인 〈입당오가전〉의 역주 작업까지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입당오가전〉은 9세기 일본 스님들이 중국 당나라를 방문해 남긴 기록으로, 이들의 수행 방식과 해양 이동 과정, 불교문화 전파의 실상을 담고 있다. 이번에 학계 최초로 역주한 결과물이 실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부에서는 '해역을 왕환하는 승려와 불교'를 다룬다. 주로 헤이안 시대 초기를 배경으로 7세기 동아시아의 상황을 검토한다. 베트남에서 전개된 불교문화에 대한 논고도 눈길을 끈다. 2부에서는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교류'를 주제로 동아시아 해역 교류가 지닌 여러 모습을 사신, 상인, 종교, 신앙 등의 키워드로 풀어낸다. 3부에는 〈입당오가전〉의 역주와 '고대 일본의 입당승·입송승 열람'을 실었다.

책을 엮은 정순일 교수(고려대 역사교육과)는 "공동 연구 2년 차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국제 이동이 제약된 그때 '전근대 사람들의 바다를 통한 국제 이동'을 다루는 우리의 연구가 새로운 의미로 발신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책은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해역사 총서'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연구소는 앞으로 〈신안선 문자 자료로 생각하는 아시아의 해역 교류〉, 〈쇄도하는 신라인, 경계하는 일본열도〉 등을 순차적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부산불교 집합적 기억의 보고

〈寶庫〉



사진으로 다시 보는 근현대 부산불교

현익채 엮음

맑은소리맑은나라 / 3만5000원

현익채 법사가 엮은 근현대 부산불교 역사

"정체성 되짚고 미래 조망하는 계기 되길"

150년 부산불교의 흐름과 숨결이 한 권의 책에 담겼다. 부산불교의 근대 태동기부터 현대 중흥기, 그리고 미래를 향한 성찰까지를 사진과 기록으로 정리한 〈사진으로 다시 보는 근현대 부산불교〉가 출간됐다. 이는 단순한 자료 모음이 아닌, 부산불교의 정신과 정체성을 되짚고 미래를 조망하는 집합적 기억의 보고(寶庫)이자 시대적 기록물이다.



지난 50여 년간 지역 포교와 부산불교 역사 기록에 힘써 온 현익채 불자(전 금정중학교 교장·사진)가 수집·정리한 방대한 사료와 사진을 바탕으로 기획된 이 책은 △근대 △현대 △탈종교화와 저출산의 시대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 '근대편'에서는 일제강점기와 개항기 이후 일본불교의 유입과 그에 따른 사찰의 변화, 범어사 선찰대본산의 주역 오성월 대선사, 명정학교와 범어사 3·1운동 등을 조명한다.

제2장 '현대편'에서는 광복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부산불교의 전개 과정을 다룬다. 특히 '광복과 전쟁의 격동기 부산불교', '불교종립학교', '금정산의 큰별 동산 대종사' 등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인물과 사건을 통해 그 흐름을 짚어본다. 이어 주요 종단들의 활동상과 불교신행단체, 어린이·청소년 포교단체들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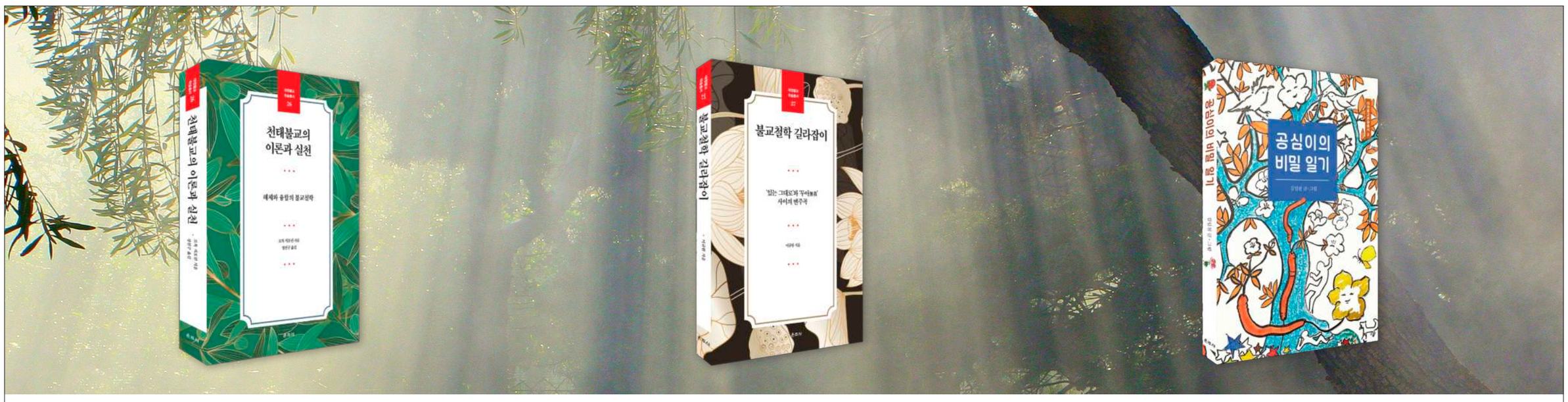
제3장 '탈종교화와 저출산의 시대, 부산불교의 미래'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종교 인구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부산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부록'편에는 '부산의 국가 지정 불교문화유산 현황', '범어사 근현대 역대 주지', '근현대 부산불교 연표'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책에서 눈여겨 볼 것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희귀 자료들이다. 특히 1937년 일본인이 세운 입정상업학교를 불교계가 인수해 오늘날 통도사 종립학교인 해동중·고등학교로 이어진 역사적 과정을 정리하며, 종립학교 설립의 뿌리를 밝혔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현익채 법사는 "이 책이 부산불교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부산 불교계의 사회적 기여와 정신적 유산을 제대로 평가하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4월 10일 오후 3시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는 〈사진으로 다시 보는 근현대 부산불교〉 출판기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이것이 천태불교의 핵심이다!

천태불교의 이론과 실천

인도불교를 중국불교로 최초로 정착시키고 토착화시킨 천태불교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전반을 서구 철학자의 안목으로 알기 쉽게 조명한 역작이다!

브룩 지포린 지음/정천구 옮김/520쪽/값 30,000원

불교철학 초심자들을 위한 안내서!

불교철학 길라잡이

2,500여년에 걸친 불교사상의 변천과 전래과정을 추적하여 불교철학의 주요 얼개를 오늘의 언어로 보여주는, 불교의 지적 전통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해 개론서이다.

이규완 지음/276쪽/값 20,000원

인공지능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

공심이의 비밀일기

자꾸만 AI에 기대는 아이의 모습에 어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주인공 공심이와 함께 명상여행을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김임천 글 · 그림/216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⑭ 마음 흔들리지 않으려면



▶한줄 요약
'놓음 명상'은 내 마음속에 얽힌 집착과 욕망의 실체를 관찰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 명상을 통해 마음의 업식을 하나씩 정리하고, 자신을 얽매는 감정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업식을 바꾸면 현실도 바뀐다

마음 속 업식에 행 · 불행 윤회
모든 인연 결과는 업식에 좌우
내 업식과 마주하고 상대해야
'놓음 명상'으로 집착 내려놓길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새소리 요란해도 숲은 요동치 않고
안개 가득 가리워도 청산은 그대로인 것을
연꽃에 물방울 스미지 못하듯
온갖 형상 나타나도 마음 밖에서 맴돌 뿐이네.

움직이지 않고 물들지 않는 청아(淸雅)한 마음의 모습을 숲과 청산(靑山), 연꽃에 비유하여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명상 설명으로서도 충분하다 할 것이나,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고, 온 천하가 내 손안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휘어잡고 무애자재(無碍自在)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쉽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생겨나는 것이므로, 알고 보면 이보다 쉬운 것은 없다고 감탄할 날이 오고 말 것이니,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쉬운 길을 찾아볼 일입니다.

우선 형상이나 모양에 끄달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위고하와 빈부(貧富)와 신분의 차이는 형상이나 모양에 불과할 뿐, 실제 마음에 있어서의 행, 불행과 희로애락(喜怒哀樂)과는 별개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다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가 되면 형상과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날 따름이니, 형상이나 모양, 그림자에 현혹되어 착각으로 사는 삶으로는 애로(隘路)와 장애(障碍)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상(我相)을 품고 존재하는 모든 중생은 행, 불행과 희로애락의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윤회하는 수레바퀴와 같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나와 인연된 모든 것, 즉 가족·직장·학교·돈·건강 등은 때가 되어 만나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과 결과의 모습일 뿐, 이들이 내게 행, 불행을 가져다주는 주체들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의 업식(業識)의 감정이 행, 불행, 그리고 희로애락의 씨앗과 열매가 엎치락뒤치락 피고 지는 것이므로, 내 앞에 나타나는 인연과 형상들은 내 업식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즉, 마음의 업식인 행, 불행의 감정이 피고 지는 때에 맞춰서, 내가 만나는 것들 즉, 가족·직장·돈·명예·권력 등의 실제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를 마음의 그림자, 유심조(唯心造)라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의 업식인 행, 불행의 씨앗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 앞에 나타난 인연의 모습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내 마음의 업식(業識)을 바꾸면 내 앞에 나타나는 현실의 모습들도 당연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나의 업식과 직접 상대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찾을 길이 없다 하겠습니다.

우선, 마음 밖에서 문제를 풀려는 생각을 하루 빨리 바꾸는 것이 중요하므로 매 순간마다 이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러한 수행에는 '놓음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놓음 명상'은 내 마음속에 얽힌 집착과 욕망의 실체를 관찰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 명상을 통해 마음의 업식을 하나씩 정리하고, 자신을 얽매는 감정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굳은 신심으로 마음을 잘 살피는 기도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놓음 명상을 실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본래 마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무심 하늘 심심할까 해와 달이 왔다 갔다
넓은 바다 적막할까 바람 불어 파도 철석
하루해가 밋밋할까 낮과 밤이 왔다 갔다
인생살이 따분할까 기쁨 슬픔 오고 가네.

한없이 여유롭고 긍정하는 마음의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걱정 근심, 번뇌 망상, 슬픔과 고통은 모두 욕심을 부린 대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욕심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 생깁니다. 하나는 습관입니다. 전생으로부터 반복된 행동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버릇이 습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능화 된 습관을 제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는 무지(無知)입니다. 욕심은 짠물과 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밝은 대낮을 욕심 부렸다면 어두운 밤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고 열을 얻으면 열을 잃게 되는 이치를 모르거나 모른 체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바로 뼛속까지 스며든 버릇과, 이치를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대체로 몸과 마음이 몹시 괴로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과와 인연을 믿는 것입니다.

인과(因果)란 원인과 결과로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서로를 의지하며 생기는 것이므로, 좋은 것만 생길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만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는 아닙니다.

그러니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심심치 않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고 객관적인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인과와 인연에 대해 즐김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에 뼛속 깊이 스며 있는 탐심(貪心)과 진심(嗔心, 화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다고 탐심과 진심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니, 감정이 울컥울컥할 때마다 내 못된 버릇이 또 나오는구나 하고 재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인과와 인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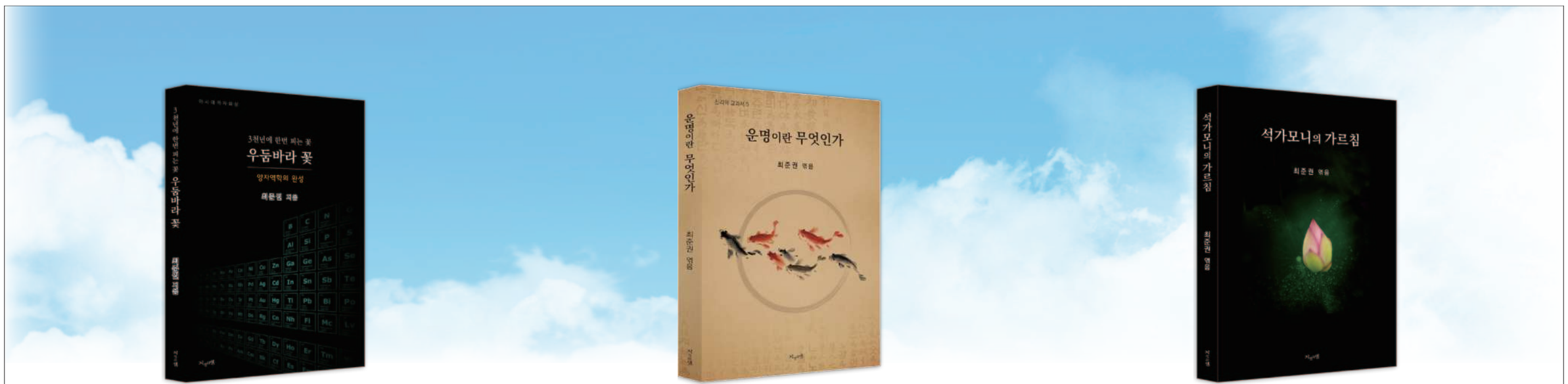
그리고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몹시 요동칠 때는, 조용히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을 잠재워서 숨을 고르게 쉬어 보십시오. 10분, 20분…한 시간 정도면 충분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 힘들면 미친듯이 절을 하십시오. 마음이 격하게 동할 때는 크게 격식을 차리지 말고, 몸이 힘들 때까지 절을 하다 보면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과와 인연의 숭고함을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쉘패스 명상의 실천도 이러한 과정을 돕습니다. 쉘패스 명상은 숨을 고르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복잡한 마음 상태를 단순화하여 본래의 평온을 되찾게 하며, 얽힌 감정을 내려놓도록 돕는 실천법입니다. 호흡과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오늘도 무심 하늘 심심할까 해가 뜨고 또 해가 졌구나.

〈조계종 총무원장〉



3천년에 한번 피는 꽃
우둠바라꽃/양자역학의 완성
이 세상은 그물망처럼 심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
과학자들이 과거 100년 이상을 풀지 못한 양자의 중첩과
얽힘 현상을 어떻게 간단명료하게 풀 수 있었을까
최준권 지음/신국판/무선/272쪽/값16,000원

자아를 되찾고 자신을 구하는 삶의 길
운명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물레방아처럼 반복해서 돌며 변화를 통해
윤회하고 있다. 넓은 눈으로 창조와 진화를 관찰하면
이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준권 엮음/신국판/무선/264쪽/값16,000원

부처님의 말씀으로 엮은 깨달음의 세계
석가의 가르침
3천년 전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인 극락에서
머무시던 부처님의 영혼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받아 왕자로 태어나셨다.
최준권 엮음/ 신국판/무선/256쪽 / 값16,000원

지성의샘 / 서울 중구 을지로14길 16-11 / TEL. 02-2285-0711 / FAX. 02-338-2722 / 이메일 gonggamsa@hanmail.net

산문 밖의 禪

김양수 화백

“禪畵, 맑은 마음으로 그린 맑은 그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김양수 화백은…동국대학교와 중국 중앙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에서 제자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화가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40회의 국내외 개인전을 열었고, 틈틈이 글쓰기에 열중하여 선시화집 〈산 아래 집 짓고 새벽별을 기다린다〉 등을 출간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달마를 품고 산 지 오래다. 그리움의 존재로 마음속에 그득했다. 그동안 달마를 향해 온통 열려 있었고 붓끝의 열렬한 화두였다. 그 화두로 잠들지 못하는 날들도 많았는데, 이제 비로소 화폭 위에서 달마와 마주한다.”

화가의 화두는 달마. 화두를 품은 붓은 기다린다. ‘한 순간’이 다가오기를. 마침내 화가는 붓 끝에 선다. 품었지만 품지 못했던 화두의 면목을 본다. 붓 끝에선 달마가 선명해지고 있다. 달마는 눈을 부릅뜨고 경책하듯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애민중생의 눈빛이 다정다감하다. 벽을 보고 앉은 달마가 아니다. ‘숨은 그림’처럼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달마다.

오랫동안 자연을 소재로 선(禪)적인 그림을 그려왔던 김양수 화백이 이번에는 달마를 그렸다. 그는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인사아트프라자에서 ‘백팔 달마전’을 열었다. 김양수가 달마를? 궁금하다. 김양수 화백을 갤러리에서 만났다.

달마의 위로

이번 전시는 황청원 시인과 함께했다. 시인은 어느 날, 달마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자신 앞에 나타나는 상상을 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달마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됐고, 그 생각은 시가 됐다. 그리고 그 시를 김양수 화백이 다시 그림으로 옮겼다. 김 화백은 약 1년 동안 300여 점의 달마를 그렸고, 그 중에서 108점을 골라 전시회를 열었다. 시화집 〈달마가 웃더라 나를 보고〉도 출간했다.

“저는 주로 자연을 그려왔죠. 개구리도 많이 그렸는데, 생명에 무게가 있다면 저와 개구리의 무게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구리도 길가의 꽃들도 모두 각자가 법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그 법문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지구가 그 반증이죠. 그래서 이 무진법문들을 선(禪)에 연결시켜 풀어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달마를 그렸어요. 어느 날, 그려두었던 달마를 몇 점 들고 황청원 시인을 찾아갔어요. 보더니 짤막한 시를 붙이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됐어요.”

김 화백은 그동안 개구리, 꽃, 산, 구름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수묵화로 선적인 그림세계를 이어왔다. 특히 김 화백의 그림에는 여백이 많다. 그의 그림에는 그림이 많지 않다. 그래서 대중이 들어갈 자리가 많다. 그림의 크기도 대작보다는 작은 그림이 많다. 하지만 그림은 모두 ‘큰 그림’이다.

김 화백은 어느 날, ‘달마’라는 화두를 들었다. 그리고 생각은 멀리 ‘십우도’까지 다녀왔다. 마음을 찾아간다는 것. 김 화백은 달마 역시 마음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이 시대의 대중에게 따뜻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 달마’가 아닌 ‘가까운 달마’여야 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 존재하는 친구 같고, 선생님 같고, 마을 할아버지 같기도 한, 그런 가까운 달마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 화백의 달마는 대중처럼 웃고, 때론 피곤한 얼굴을 하고,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한다. 그래서 달마도 앞에 선 대중은 달마처럼 웃고 울다가 점점 고요해진다. ‘같이’한다는 것에서 위로가 시작되는 것일까. 대중은 그렇게 ‘불멍’을 하듯 ‘달(마)멍’을 하게 된다.

“이 시대의 대중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달마를 그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해서요. 잠시라도. 그러니까 달마도 웃을 줄 알아야지요. 달마가 ‘올드한’ 소재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달마라는 소재는 올드하고 아니고 할 그런 소재가 아닙니다. 십우도가 그렇고 부처님 말씀이 그렇듯 달마 역시도 시대와 상관없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갤러리에 걸린 108점의 달마를 본다. 개구리 한 마리가 달마에게 꽃 한 송이를 올리고 있다. 수선화에 물을 주고 있는 달마. 동백꽃한테 말을 걸고 있는 달마. 잠시 고요해진다. 김양수의 달마엔 그렇게 ‘고요’가 있다. 김 화백이 그림 속에 ‘고요’를 그린 것은 그림 앞에 선 대중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많은 ‘흔들림’으로 인해 볼 수 없었던 심연의 마음을 ‘고요’가 주는 투명함을 통해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우물에 돌을 던지면 그 파장으로 생긴 물결 때문에 물속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물결이 고요해지면 물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고요해지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거죠.”

김 화백의 그림은 달마도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때를

고향 진도서 난초화 보고 화가 꿈꿔
자연풍경 소재로 한 선화 세계 구축
여백 · 고요 미학으로 ‘위로’하는 그림
황청원 시인과 컬래보 ‘백팔 달마전’

기다리던 생각의 모습이 꽃이 피듯 화백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김 화백은 별도의 밑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의도하고 계산할 수 없이 순간에 ‘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화라는 것은 선의 세계를 경험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손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느끼는 마음 작용이 그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손은 도구일 뿐이지요. 300점이 넘는 달마를 그렸는데, 모두 그렇게 그렸어요. 제가 그린 그림이지만 그렸던 그림을 똑같이 다시 그리라고 하면 못 해요. 그 당시의 순간이 그린 것이기 때문이죠.”

진도, 난초, 수묵, 동국대

김양수는 언제부터 ‘화가’를 꿈꿨을까. 그리고 어떻게 꿈을 이뤘을까. 김양수의 꿈은 전라남도 진도에서 시작된다. 그는 진도에서 컸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따라 읍내에 갔던 김양수는 한 서예가를 보게 된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림’을 본다. 그 그림이 김양수의 꿈이 된다. 김양수가 처음 본 ‘그림’은 수묵의 난초다.

“서예가 선생님이 난을 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꿈.”

김 화백 그림의 뿌리는 진도다. 그리고 그 그림은 먹물의 그림이다. 진도는 서예가와 화가들이 많았다. 초의, 추사, 소치, 그리고 미산, 남농 등으로 이어진 화려한 남종문인화의 화맥. 진도는 그런 곳이다. 먹의 그림이 ‘그림’인 곳.

남농의 그림을 좋아했던 김양수에게도 ‘그림’은 역시 먹으로 그린 것이었다. 다른 그림은 생각에 없었다.

그렇게 꿈을 품은 김양수는 진도에서 진도의 그림을 보고 그리며 자랐다. 다음은 대학교 진학. 김양수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동국대학교. 서울대를 비롯해 여러 미술대가 있었지만 김양수의 생각엔 동국대 밖에 없었다.

“그냥 동국대에 가고 싶었어요. 다른 대학은 전혀 마음이 가질 않았어요.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안에 불연이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당시의 그런 저의 마음을 설명하자면, ‘인연법’이라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고 싶었으니까요.”

김 화백은 동국대가 좋았다. 정각원(법당)이 있는 것도 좋았다. 김 화백은 등교하면 정각원부터 들렀다. 그리고 매일 108배를 했다. 하고 싶어서, 그냥 했다.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정각원에 갔다. 부처님 앞에 앉아 강의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어떤 그림을 그릴까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렇게 김 화백에게 불교는 이유가 없는 ‘이유’였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었다. 동국대를 좋아했던 이유, 정각원부터 달려갔던 이유, 바랄 것 없이 그냥 했던 108배, 그 이유 없는 이유들이 김양수의 그림 속에 있는 것들이다.

이루지 못한 미래, 다시 회향

김 화백은 나이 육십을 앞둔 2018년 어느 날, 고향 진도로 돌아간다. 이유는 ‘회향’이다. 자연과 가까울 수 있다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였지만 그 보다는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 어려

동국대 시절 매일 법당서 108배 해
그림 그리기 전 자신부터 들여다봐
어려운 대중과 함께하기 위해 낙향
화실 전소로 작품 모두 잃은 시련도

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이유였고, 그것이 김 화백의 ‘회향’이었다.

김 화백은 산기슭에 작은 화실 하나를 지었다. 이름은 적염산방. 김 화백의 마지막 계획은 ‘선 미술관’ 건립이다. 적염산방은 미리 보는 작은 ‘선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적염산방은 김양수만을 위한, 김양수만의 공간이 아니다. 외롭고, 아프고, 고단한 모든 사람의 공간이다.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이 있고, 시가 있고, 숲이 있는 공감의 공간이다. 공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향을 피우고, 명상하고 그림을 그리는 곳이다.

김 화백은 예술에 치유의 힘이 있다고 말한다. 그림이 단지 감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돌보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맑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

“내가 맑지 못하면 내가 그리는 그림도 맑을 수 없어요. 그럼 보는 사람도 맑을 수 없는 거죠. 내 마음이 흔들리면 붓도 흔들리죠. 그림은 기도예요. 붓끝에 마음을 얹어서 누군가의 삶에 가 닿기를 바라는….”

김 화백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자신부터 들여다본다. 명상, 독경, 맑은 차 한 잔. 김 화백은 잔잔한 우물처럼 마음속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을 때, 그 보이는 것을 붓끝에 담는다.

2023년 여름, 그 좋은 계절에 김 화백은 큰 시련을 겪었다. 김 화백은 화실 적염산방을 화마로 인해 통째로 잃었다. 목숨과도 같은 작품들은 순식간에 한 줌의 재가 됐다. 어려운 시간이 흐르고 김 화백은 다시 붓을 들었다. 그림은 더 단단해졌다. 여백은 여백대로, 선은 선대로, 먹은 먹대로, 고요했다. 많이 흔들렸지만 그의 그림은 다시 고요하고 평온했다.

벽에 걸린 달마를 본다. 달마가 거울 앞에 앉았다. “똑 똑 똑, 손꼽아 기다리지 않아도 / 어느 날 그대 마음 거울에 / 붉은 노을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각자의 붉은 노을을 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해진 것’들이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깊은 곳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도 답은 어렵고 의심은 확실해진다. 김양수 화백은 여귀산 기슭에 이루지 못한 미래를 다시 지었다. 이견토굴. 김양수의 달마가 말한다. 언제가 붉은 노을이 찾아올 것이라고.



김양수 作 무애자재.



김양수 作 차안과 피안.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❸ 법령(法靈 · 法令 · 法玲) 스님

▶한줄 요약
법령 스님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후, 1615년에 전북을 대표하는 사찰인 김제 금산사 불상과 1622년에 왕실 사찰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조각승들과 공동으로 불상을 제작했다.



전북 명찰 불상 조성…17세기 호남 僧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왜구에 의해 파괴된 사찰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사찰에서 전각과 불상 및 불화 등을 새로 제작했다. 이와 같은 중건 과정에 대한 문헌기록이 거의 전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조각승들의 활동 시기나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각과 불상의 조성 과정은 사찰 중창과 관련된 단편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문헌은 익산 관음사 목조문수보살입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이다. 이 조성발원문은 1605년에 완주 위봉사 북암에 4구의 보살상을 제작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위봉사가 위치한 추줄산(嶅崒山)에 거주한 의암(儀庵) 스님이 정유재란 중에 소실된 북암을 중건하는 순서가 서술되어 있다.

북암은 1601년 음력 1월 법당을 건립하기 시작하고, 1602년 목재를 구해 삼존상을 만들었으며, 1603년 영산회상도를 조성하면서 전각을 단청하였다. 1605년 음력 8월에 문수, 보현, 관음, 지장보살상 등을 조성하면서 약사도, 아미타도, 지장시왕도를 완성하여 11월에 법회를 마쳤다. 따라서 17세기 초반 사찰이나 암자의 중건 순서는 전각(殿閣)을 건립한 후, 규모에 맞게 불상과 불화를 조성하고 전각에 단청(丹靑)을 입히는 순서로 진행됐다.

그리고 개별 조각승들이 1년에 몇 건의 불상을 조성했는지는 북암 보살상을 제작한 원오 스님을 통해 알 수 있다. 원오 스님은 1605년 음력 3월부터 7월까지 논산 쌍계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높이 190㎝)을 제작한 후, 음력 8월부터 11월까지 완주 위봉사 북암에서 충신(忠信), 청허(淸虛), 신현(信賢), 신일(神釰)과 높이 153㎝의 목조보살입상(4구)과 높이 51㎝의 목조여래좌상(1구)을 만들었다.

따라서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개별 조각승은 최대한 1년에 봄과 가을로 나눠서 개별 전각에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상의 크기에 따라 제작 기간이나 참여 인원이 다르겠지만, 대략 3~4자(90~120㎝)의 중형 불상은 조각승 5~6명이 두 달이나 석 달 보름 정도 제작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17세기 초반 호남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 원오(元悟, 1599~1611·이하 활동시기)·응원(應元, 1613~1635)·수연(守衍, 1615~1639)·각민 스님(覺敏, 1605~1614) 등은 활동이나 조각승 계보 및 불상의 양식적 특징이 밝혀졌다. 이외 주목되는 조각승은 법령 스님(法靈·法令·法玲)이다.

법령 스님은 1615년 김제 금산사 독성상을 태전(太顚) 스님, 응원(應元) 스님, 수연(守衍) 스님, 인균(印均) 스님과 조성하고, 1622년 5월에 현진 스님과 한양에 있던 왕실 사찰인 자수사와 인수사에 목조비로자불좌상(2존), 석가여래삼존상, 노사나불(2존), 미타여래(2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등을 제작하였다. 그 후 법령 스님은 1624년 음력 3월 수화승으로 논산 쌍계사 북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1991년 옥천 가산사 화재 때 소실)을 각현(覺賢)과 함께 조성하고, 1629년에 수화승으로 태감(太甘), 천윤(天允), 각현(覺玄)과 함께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만들었다.

또한 1640년 음력 2월부터 4월 1일까지 수화승으로 군산 불명사 아미타삼존(본존은 익산 숭림사 봉안), 석가삼존, 미타상, 독성상을 제작한 후, 1641년 음력 6월에 청헌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부화승으로 참여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법령의 활동 시기는 1615년부터 1641년

임란 이후 군산 은적사 등
전북 및 충청서 불상 조성
조각승 수연 등과 공동작업
17세기 조각승 혜희의 스승

6월까지로, 주로 호남 북부와 영서 남부 지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하였다.

법령 스님(1615~1641)의 계보는 철학(哲學, 1640~1654)·각현(覺賢·覺玄, 1624~1640)·혜희(惠熙·慧熙, 1640~1677)·천윤(天允, 1629~1655)·조능(祖能, 1640~1657)→마일(摩日, 1655~1701)·금문(金文, 1655~1706)·청윤(淸允, 1684~1716) 등으로 이어지는 1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계보이다.

이런 문헌을 바탕으로 법령 스님은 최소한 1580년 전후에 태어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후, 1615년에 전북을 대표하는 사찰인 김제 금산사 불상과 1622년에 왕실 사찰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조각승들과 공동으로 불상을 제작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스님은 수화승으로 1624년 논산 쌍계사 북암에 목조아미타여래좌상(옥천 가산사 봉안)과 1629년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하여 호남 북부와 영서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조각승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1640년 익산 숭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을 제작할 때 대화원(大畵員)으로 명성을 얻고, 1641년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조성 때에 부화승으로 참여하였다. 조각승 법령은 다른 조각승 계보와 달리 90㎝ 정도의 불상을 적은 인원인 1~3명의 보조화승과 함께 작업하였다.



17세기 호남과 영서를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 법령 스님이 1629년 조성한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법령 스님이 조성한 옥천 가산사 소장 목조여래좌상. 1991년 화재로 소실됐다.

법령 스님이 제작한 대표적인 불상은 1629년 군산 은적사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삼존상으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배치하였다. 석가여래의 높이는 111㎝, 협시보살의 높이는 112㎝이다.

석가여래는 상반신을 앞으로 살짝 숙인 모습으로 시선은 정면보다 조금 아래를 향한다. 전체적으로 긴 상반신에 비해 하반신의 높이가 낮고 양 무릎 사이가 긴 편이다.

얼굴과 앉은키의 비례가 인체에 가깝고, 어깨가 넓어 당당한 모습이다. 머리는 육계와 구분이 불분명한 형태로 굵은 나발(螺髮)로 이루어져 있고, 정수리에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와 이마 위쪽 중앙에 반원형의 중간계주(中間髻珠)가 있다. 타원형의 얼굴은 뺨과 턱의 살집이 올라 부드러우면서 양감이 있다. 가늘게 뜬 긴 눈, 콧대가 높은 코, 미소를 머금은 작은 입, 목에 삼도(三道)와 더불어 하나의 선이 들어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착의 형식은 대의 안쪽에 부견의를 입지 않고, 오른쪽 어깨에 걸친 두꺼운 대의(大衣) 안쪽 자락의 끝단이 U자형으로 짧게 늘어져 있다. 그 옆으로 4가닥의 옷주름이 자연스럽게 접혀 있고, 나머지 대의 자락은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반대편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수직으로 내려와 복부에서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펼쳐져 있다. 하반신 중앙에는 윗부분이 좁고 아랫부분이 넓게 펼쳐진 대의자락이 길게 늘어지고, 좌우로 2가닥의 대의 자락이 넓게 펼쳐져 있다. 왼쪽 무릎 위에는 짧게 소맷자락이 걸쳐 있고, 등 뒤에는 앞에서 넘어온 대의 자락이 엉덩이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가슴을 덮은 승각기는 단순하게 수평으로 접혀 있다. 오른손은 다섯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뻗어 무릎 밑으로 내린 촉지인을, 엄지와 중지를 맞댄 왼손은 따로 만들어 손목에 끼워 넣었다.

협시보살은 석가여래상과 얼굴이나 신체 비례가 유사하지만, 수인, 지물, 착의법 등이 다르다. 문수보살은 대의와 부견의를 모두 착용하였고, 석가여래상과 달리 오른팔에 부견의 자락이 걸쳐 있다. 귓불에는 꽃모양 귀걸이를, 양 손목에는 팔찌를 착용하고 있다. 보살상의 머리 앞에 상투를 감싸는 넓적한 판재와 보관은 근래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보현보살상은 부견의와 대의를 착용한 문수보살상과 달리 천의(天衣)를 착용하고 있다. 상반신은 짧은 숄 형태의 겉옷을 걸쳤는데, 옷 사이로 위팔뚝에 착용한 띠 형태의 장신구와 함께 양팔이 훤히 드러나 있다. 보현보살상 배 중앙에 이중 화형복갑(花形腹甲) 장식이 화려하게 표현되었다.

조각승 법령 스님은 6건의 문헌 기록만 남아 있지만, 최소한 26년 활동기간 중 1년에 1~2건의 불상을 제작했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더 많은 기년명 불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작연대를 알 수 없는 청양 정혜사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은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대의를 걸친 착의법 등에서 1620~1630년대 법령 스님이나 그 계보에 속한 조각승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1.net〉

인간과 우주의 본질과 진리를 찾는 실상연구원 총서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
타타타
나의 존재 이유는 오직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게 하여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다!
최준권 저/304쪽/값 15,800원

종말은 디스토피아인가?
지구의 리셋
기후위기, 바이러스, 전쟁… 지구의 미래, 인류의 생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 종말의 진실을 밝힌다!
이삼한 저, 최준권 편집/296쪽/값 15,800원

깨달은 자의 명언 모음집
타타가타
운명의 주인은 자신이다! 깨닫기 전에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깨닫게 된다면 거짓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삼한 저, 최준권 편집/184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2637-8988 ● 팩스 2676-9759 ● 실상연구원 010-7378-5581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26호 | 15 | 전면광고

의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구하고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부지 : 7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25억

- 위치 : 부산시
- 면적 : 700평, 전통사찰
- 법당 : 30평, 요사60평
- 매가 : 35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매도, 매수,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 요사, 별채 50평
- 가액 : 2억2천
- 수도 가스난방

010-2369-3382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1000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 보증금 : 5000/월세 : 180만원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010-3102-5102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사찰(토지) 급 안내

- 위치 : 강원 원주시 문막 IC에서 10분거리
- 토지 : 616평, 2차선 도로 접, 30M 산기슭
- 가격 : 2억 6천만원

- 위치 : 강원 원주시 귀래면, 자동차 전용도로 2분 거리
- 토지 : 7,570평 · 버스 차량 진입
- 가격 : 11억

010-2708-6972

포교원 건물(급)안내

- 위치 : 강원 원주시 학성동
- 면적 : 82평 실평(3층 건물)
- 대로변 주차 가능
- 매가 : 4억8천만원
- 통화 안 될때는 문자·문의

010-2708-697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
- 전세가능 : 보 4000 / 월세 40
- 청정 기도도량 입니다

010-2807-0509

포교당 안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주 변 : 상가거리, 위치 좋음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유동인구 많음)
- 규 모 : 30평(3층) – 삼존불, 원불, 영단, 신중단
- 보증금 : 5백만원(월세 6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010-6416-0663

사 찰 안 내

- 위 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흑석산 중턱
- 대 지 : 350평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 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 가 액 : 답사 후 결정

010-7710-8334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대구시 중심. 매매 또는 임대
- 전통형식대웅전 40평(웅장함)
- 전통기와 종무원, 문학관, 천왕문
- 뒤 대숲, 실개천, 등산로입구
- 주거지역 천5백평, 분할가능
- 매매시 몽땅 75억, 분할 35억
- 임대시15억(관리 잘할 스님)

- 전주시중심. 문화재 보유
- 대웅전 30평(전통)산신각
- 1800평 13억원 급매

– 기도도량 –

- 안동 : 9천만원 법당, 요사채
- 영천 : 4천만원 법당, 요사채
- 대구 팔공산 : 2억 5천만원

053-745-9999,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휴대세교길 234번길 24 대원사
- 법당 30평, 공양간 20평, 요사채 방2 거실1
- 가액 : 3억 2000만원(절충가능)

041-548-7181
010-3423-7181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새고개2길 47 (삼천포)
- 대지 : 265평 (법당20평 정동향)
- 요사 : 30평 (방3, 화장실2, 정남향) 3평(황토 찜질방 1동)
- 특징 : 대형e마트 도보3분 위치 30대주차, 마당까지 진입
- 가액 : 2억3천(地價만 계산했음)

010-8868-7017

토굴암자 안내

- 주소 : 경북영천시 화남면 온천길 114 -3 무영사
- 대지 : 85, 법당 : 16, 요사 : 12
- 금액 : 4300만원

이곳은 소쿠리터라고합니다. 가장중심의자리에있어서 안정적 기운이맑고 편안한터입니다. 이도량은 비구니스님이거주하시면 잘어울릴것입니다.

010-8987-4570

사찰(토지) 급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주택 40평(법당 이용)
- 대나무숲 250평
- 주차 100대 가능
- 토지 1505평

010-3565-1151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6898-9114

제주 (땅) 안내

-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일주도로70m거리
-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불교상가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신동 2차선 도로접(인북로 325번지)
- 1층 상가임대 현재 불교용품 판매점
- 우리옷(생활한복), 차, 다구, 선물용품. 현재 영업중
- 개인 사정상 급임대
- 임대보 1천5백만 월35만원 (시설비 권리금3천만)

010-7298-119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대원산업
BULJE DAEWON CO.LTD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2025년 4월 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생활안내

1526호 | 16 | 전면광고

아름다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듣는 이로 하여금 목욕을 한 듯
상쾌하게 한다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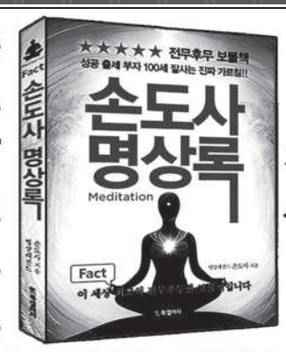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손도사 유튜브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요

암자터, 명당안내

- 암자, 명상원, 산속찻집, 문화원으로 적합함
- 위치:지리산 하동 악양면
- 청학골 전설의 두계곡 물이 합수하여 정원수가 됨(해발 200여m) 100여m 청석 반석으로 물이 감아 흐름
- 482평, 평당 15만원

010-8637-3872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재,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사찰전문 건축공사

1. 사찰 지붕공사(칼라 강판 · 판넬)
2. 일반주택, 빌라, 상가 (기와/슬레트, 슬라브) 지붕공사
3. 요사채 창고 등 신축 및 수리
4. 전기판넬, 보일러 등 난방 공사
5. 전기배선, 조명 공사
6. 진입로, 옹벽, 기타 토목공사 *공사관련 모든 사항 상담 가능

대성개발 010-3817-8075 / 010-3824-0846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태아령 유산낙태, 남 · 여 구별법(예방법), 산소 무덤 물찬곳, 송사 재판, 암, 자궁암, 유방암
- 이혼수, 부도 • 배우자가 일찍 죽는 상 • 귀신 붙은 상
- 자살상, 중풍, 뇌졸중 상, 자식이 일찍 죽는 상 • 조상기도특수비법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구성학
- 스님, 법사, 무당, 일반인, 특별책임 개인지도

상담문의 010-4014-8822 작명, 아기이름, 개명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개인지도

사)한국불교어산종 종도모집 안내

한국불교어산종은 영남범패 종단으로써 남성적이고 웅건함을 지니고 용맹 정진하는 수행자들의 기질과도 닮은 영남범패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 시켜갈 수 있도록 함께할 종도 스님을 모십니다.

범패 교육원 수강생 모집
의식 및 사물
(쉽게 배울 수 있는 악보로 수업)
총무원장 010-2665-9108
어산원장 010-3156-2211
'밀양영산재보존회'

사)한국불교어산종 총무원장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육임AI 순회 효능 설명회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⑦ 박물관 1 – 부처님을 만나는 법

본래 부처님은 올려다 보아야 한다

대각전에서 부처님이 부처님을 장엄하는 〈화엄경〉의 법계에서 다시 부처님을 색으로 보지 말라는 〈금강경〉의 사구게로 자유로이 산책했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답은 얻지 못한 채 동국대학교를 아직 더 서성여야 할 것 같다. 동국대학교의 초입에 있는 대각전을 넘어 조금 걸어가면 남산을 오르기 위한 두 가지 선택이 나타난다. 먼저 드러나는 계단을 오를까 하더라도 조금만 더 들어가면 단번에 언덕을 오르는 엘리베이터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산책자에게 어울리게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보고자 한다.

계단을 오르고 올라도 아직도 올라갈 계단이 남은 곳이 동국대학교다. 원체 산을 좋아하는 불교여서 그런가, 왜 학교를 이 남산에 지었을까, 도대체 남산 중턱까지 매일 등산을 하면서 왜 몸둥이는 건강하지도 이쁘지도 않을까 하면서 오르는 내내 일어나는 온갖 잡념을 다하면 대각전이 위치한 이해랑예술극장에서 혜화관으로 오르는 계단이 끝나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에는 더 올라야 할 계단이 남았으니 기분이 절로 안 좋아 질 수밖에 없다. 원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인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비달마 수행론에서도 끝난줄 알았는 데 끝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범부에서 성자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한 극점을 말한다. 바로 인위(忍位)이다. 계율과 선정을 닦고 사념처에도 자유자재해진 수행자가 사성제 전반을 수습하는 단계가 난, 정, 인, 세제일의 사선근(四善根)이다. 이 사선근 안에서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닦고 닦은 수행자의 지혜를 불에 비유한다. 먼저 수행자는 계속 사성제를 반복적으로 고찰하여 점차 그 지혜가 뜨거워진다. 철을 단련하면 할수록 뜨거워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를 난위(煖位)라고 한다. 그런데 뜨거워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바로 끓는 점이다. 이 지혜의 뜨거움이 극에 달해 끓는 점에 이르는 것이 정위(頂位)이다. 그런데 이 지혜의 끓는 점, 즉 극치에 올랐지만 사실 윤회 세간에서나 잘난 것이고, 이 삼계를 뚫고 나갈 힘이 충분하지는 않다. 이처럼 지혜의 끝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수행자가 사실 자신의 깨달음이 아직 부족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단계가 바로 인위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단계, 이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성자가 되기 직전, 윤회 세간의 제일인자인 세제일위(世第一位)에 오른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 말이 나는 곳이 인위의 이야기로 들린다. 사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동국대학교 신입생들은 계단을 넘고 넘어도 아직도 남아있는 계단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인위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고학번들은 초연한 표정을 짓는다. 인위에 오른 것이다. 이쯤 되면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 세제일 위에 이르고 이 한 찰나를 뚫고 졸업을 하게 된다.



법주사 수정암 석불좌상. 사진출처=국가유산청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단계가 '인위'
수많은 계단은 부처님 올려보는 장치
그래야 본받고 싶고 가르침 계속 생각

이야기가 많이 샌 것 같다. 아무래도 15년을 이 언덕을 오르면서 나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매일 오르고 앞으로도 올라야 하는 계단에 악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서인 듯하다. 그래서 아직도 학교를 배회하며 사는 것일까. 아무튼 계단에 할 말이 많지만, 이 이야기는 앞으로 또 올라야 할 동국대학교의 계단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자. 이 교내 첫 번째 계단이 끝나는 곳에는 박물관이 있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은 1963년 개관했다. 우리나라 미술사학의 길을 연 황수영 박사가 초대관장으로 취임한 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학자들이 관장을 역임한 권위 있는 박물관이다. 특히 국보 2점(보협인석탑, 명 송죽문 항아리)과 여덟 점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대학 박물관으로서는 흔치 않은 소장품을 가지고 있다. 불교종립대학의 박물관이라고 해서 불교유물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안중근처럼 천주교를 믿은 인물의 글씨도 가지고 있는데 '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 즉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서화이다. 보물로도 지정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명진관이라는 건물의 옆켠에 이 글씨를 딴 비석도 세워놨다. 사실 박물관이야 소장하는 것이 다인일이니 이웃종교인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 할 건 없겠다. 이를 학교의 기념물로 내세우는 건 다른 문제라 생각하지만 말이다.

다시 돌아와 박물관은 상설전시와 특별전시를 통해 과거를 다양하게 만나게 해준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의 특별전시는 가끔 어떻게 저런 기획을 했을까 할 정도로 재기발랄한 전시도 많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일이고, 나에게 항상 박물관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상설 전시실의 '법주사 수정암 석불좌상'이다. 완전한 형태의 좌대와 불상으로 이루어진 이 석불좌상은 항상 온화한 미소로 박물관을 온 사람들을 맞아주고 계신다. 이제야 동국대학교 박물관이 불교종립대학의 박물관임을 체감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부처님이시다.

석불좌상의 좌대부분은 구각의 기단 위에 연잎 모양이 올라가고, 그 위로는 마치 연꽃의 대를 연상시키는 구각기둥이 곧게 뻗은 다음 아름다운 연꽃이 만개한 연화좌로 완성된다. 이 좌대의 높이만 120cm로 웬만한 사람의 상반신에 달하고 그 위로 가부좌를 틀고 항마촉지인을 하신 부처님이 앉아계신다. 이 불상이 1m에 가까우니 좌대와 불상의 도합 2.2m의 큰 석불좌상이다. 자연스레 우리는 부처님을 올려 바라보게 된다.

본래 부처님은 올려다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러러보아 본받고 싶어지고, 그리워하여 그의 가르침을 계속 생각하게 한다. 본래 인도에서 오랫동안 불상의 역할을 해온 불탑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인도에서 발견된 절터에서 이는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일이라 한다. 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기 편하게 평지에 위치시키지 않고 언덕 위에 탑을 지었을까? 사실 당연한 일이다. 중생이 간단하게 부처님을 뵐 수 있으면 아무런 수행의 분심(憤心)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법화경〉 '수량품'의 비유에서도 의사의 자식들이 아버지가 항상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는다. 그럴 때 의사는 자리를 피해 죽은 척하여 자식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결국 약을 먹게 한다. 부처님은 쉽게 보아서도 안되고 뵙더라도 올려다 보고 추앙해야 하는 분이다. 아까 대각전에서 걸어 올라온 원망의 계단이 다시 박물관 부처님을 올려다보는 전시장치라는 생각이 들면 계단의 의미를 인정하게 된다. 이것이 인위일까?

〈동국대 박사〉

민중을 위해 계를 버릴지라도 '善' 위해 스스로 청정케 하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⑭ 삼계교도의 계율

삼계교 탄압사는 한국에서는 〈삼국유사〉 속에 은밀하게 드러나며, 일본에서는 〈영이기(靈異記)〉에서 확인됩니다. 〈영이기〉는 중국의 소설 〈명보기〉를 계승한 것으로 당시의 풍경을 알 수 있습니다.

삼계교에서 걸식행은 좌선, 육시예배와 더불어 수행생활 중에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기본요소입니다. 그런데 〈영이기〉에는 걸식을 자주 금지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승니령(僧尼令)'을 보면, 제5, 제13, 제23조 등에 비추는 그 기록은, '승니를 사원에 정주(定住)시켜 일정의 범위 내에서만 민중교화를 허락하였다'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민중을 향리에 묶어놓으려는 정책이었습니다.

후지와라(藤原)시대에는 승려들의 활동이 지방을 주유하며 널리 더 많은 민중들과의 교류를 하던 때로 이에 정부가 유행(遊行)을 엄히 금지했고, 이는 곧 〈영이기〉에 담긴 시대상이었습니다.

〈영이기〉에는 정부의 탄압과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도(私道, 사사롭게 수계받음) 걸식승들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제일인 지광(智光)이 사미승인 행기(行基)가 대승정에 임명된 것을 비방해, 지옥의 업화에 태워진 설화는 〈영이기〉 상·중·하 권을 통해 일률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삼계교의 소의경전인 〈지장십륜경〉에서도 자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계교에서는 민중의 포교를 위하여 스스로 계를 버릴지언정, 계의 중요성은 항시 설하고 있습니다. 〈지장십륜경〉에는 말법(末法)기 승려관과 계의 중요성을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법에 의해 출가하여, 악행을 짓는다면 이는 옳은 사문이 아니라 자칭 사문이요, 범행이 아니라 자칭 범행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구는 일체 천룡야차 내지 일체 선근의 공덕복장을 열어, 중생의 선지식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욕심을 제치고 삭발하여, 법복을 입은 연고로, 모든 중생의 선근을 증장함인데, 이는 천인(天人)에게 선도(善導)를 열고 파계비구와 사인(死人)까지 미침이라. 계의 힘은 마치 우황과 같아, 소가 죽은 뒤에 사람이 취하며, 녹향 역시 사슴이 죽은 뒤에 사용함이라."

이렇게 비록 비구가 악행을 지었으나 출가의 공덕성을 중히 여겨, 그 '계(戒)'의 힘이 우황이나 사향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들은 '아양승(痤羊僧)'이라고 합니다. 〈영이기〉는 '아양승'을 이처럼 설명합니다.

"어떤 것이 아양승인가? 근본 죄를 모르고 범(犯)과 불범(不犯)과, 경중(輕重)을 모르고, 미세 죄를 참회하는 것을 모르고, 우치 무지하여 죄 있음을 두려워 않고, 또 선지식 장부(丈夫)에 의지하지 않고, 자주 선지식 장부와 친하지 않기에, 경중(經中)의 깊은 뜻에 있어 무엇이 선지식인가? 무엇이 무거움과 가벼움을 범하는 것인가? 또 수행에서는 무엇을 선(善)으로 하고 무엇을 악(惡)으로 하는 가를 자문 할 수 없다. 이러한 양상을 아양승이라 한다."

이른바 '자기 참회'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데 아양승들이 지켜야 할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태어난 이래(生來), 삼업이 온화하여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

②태어난 이래(生來), 입신출세를 원하지 않으며, 가장(家長)이나, 관직(官職)을 갖지 않는다.

③태어난 이래(生來), 죄를 두려워해 십악(十惡)과 계(戒)를 범하지 않는다.

④출가 후에 계를 지키고 죄를 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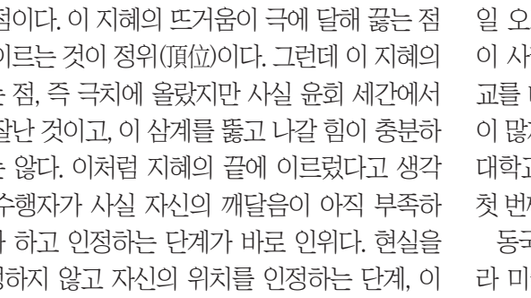
⑤출가 후에 입신출세를 바라지 않으며, 인간과 법(法)의 주인이 되려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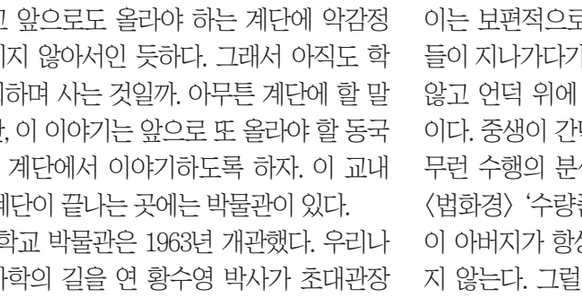
⑥십이두타(十二頭陀)를 배우고, 항시 겸손하여, 열악한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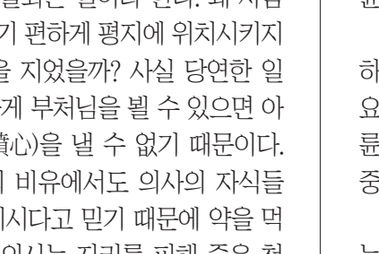
삼계교는 스스로에게는 '인악(認惡,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남에게는 '보경(普敬,널리 존경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삼계교가 흥했던 것도 구도의 실천과 이를 바탕한 애민정신에 있습니다. 이는 민중들이 애독하는 소설 〈명보기〉 〈영이기〉에 면면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교의 사상이 쉽게 단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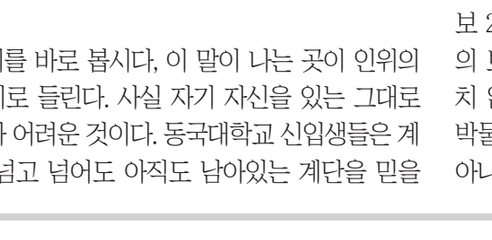
〈송림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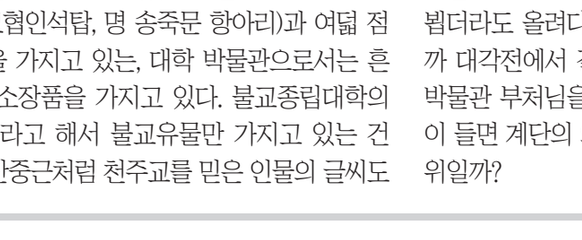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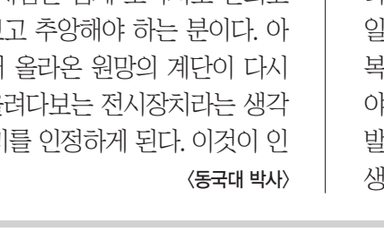
침향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약쑥향을 담은 양초 (강화도 사자발 약쑥)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PC 팜 원통초

대 중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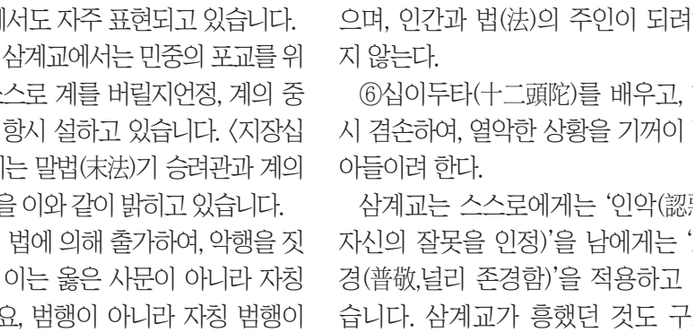
연꽃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중) 원기중(소) 1호

밀랍향을 담은 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밀납향을 담은 초

대 중 소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NAVER 삼환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쌍대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❼ 청명 _ 경주 길을 걷다(2)



▶한줄 요약
4월은 청명과 함께 문을 연다. 하늘이 맑고, 밝아지기 시작한다는 이 절기에는 열린 하늘 틈으로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한다. 청명은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생명의 절기다.

하늘이 밝아지는 생명의 절기, 다시 봄이 돌아온다

태양의 황경이 0°를 이루었던 지난 절기. 춘분은 그렇게 겨울로부터 태양의 힘을 돌려받아 빛의 계절을 열었다. 봄의 문이 열리는 그 0의 선에서 태양은 다시 힘차게 발을 구르고, 마침내 황경 15°에 다다르는 시간. 다섯 번째 계절, 청명(淸明)이 시작된다.



분황사 도량 밖 드넓은 대지에는 청보리밭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낸 청보리싹이 드넓은 유적지를 자분자분 덮어나가는 계절이다.

청명과 한식

4월은 청명과 함께 문을 연다. 하늘이 맑고, 밝아지기 시작한다는 이 절기에는 열린 하늘 틈으로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한다.

일 년의 24절기 중, 본격적인 농사력을 셈하는 것도 청명부터다. 청명 전후로 논과 밭의 흙을 고르고, 비로소 봄 밭갈이가 시작되는 것이다.

"삼월이라 모춘이니 청명곡우 절기라네/ 봄햇살은 다양하며 만물이라 화창하니/ 백화는 난만하고 새소리는 각색이네."

〈농가월령가〉 3월령에 전해지는 이 절기의 모습은 이토록 해사하다.

청명과 함께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한식'. 동지로부터 104일째 되는 날이 청명, 105일째인 바로 그다음 날이 바로 한식이기 때문이다. 절기와 세시풍습이란 자연의 모양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니, 하루 차이인 청명과 한식의 풍경도 손잡은 아이들 마냥 하나와 다름없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청명이 다가올 즈음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를 비벼 새 불을 일으켜 임금에게 바치고, 임금은 다시 이 불을 문무백관과 360 고을의 수령에게 나누어준다. 이를 '사화(賜火)'라 하는데, 수령들은 한식날 다시 이 불을 백성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백성들은 이 사화의 시간 동안 불을 쓰지 못했는데, 새 불을 받기까지 밥을 지을 수 없어 미리 익혀둔 음식이나 찬밥을 먹어 이 날을 한식(寒食) 혹은 숙식(熟食)이라 불렀다는 것.

이 절기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과거 옛사람들이 이 시기 빛과 양기가 강해지는 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위험성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빛은 신성이며, 귀한 만큼 어려워해야 할 경외의 대상이었다.

고대로부터의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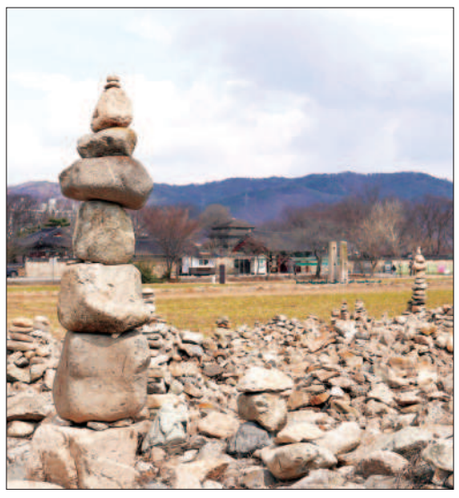
아마도 한식의 유래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춘추시대 인물인 개자추(介子推)의 설화일 것이다. 망명해 있던 진나라 공자 중이를 위해 헌신했던 개자추. 그는 훗날 자신의 공이 잊혀지자 분개한 마음에 산으로 은둔하는데,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중이가 개자추를 산 밖으로 끌어내려 불을 냈지만 끝내 나오지 않고 목숨을 버린다. 그런 개자추를 기리기 위해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한식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것은 진나라 시대의 일, 실은 그보다 오랜 상고 시대부터 금화(禁火)와 개화(改火)의 풍습은 이어지고 있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물이 생명을 지니며,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다고 믿었다. 이런 사상은 불에도 투영이 되어 오래된 불은 잠재우고, 새로운 불을 켜 새 생명의 기운을 얻는 의식을 반복해 온 것이다. 이후 별자리를 읽고 길흉화복을 점치기 시작한 때부터는 청명과 한식에 불을 끄는 의미는 더욱 심오해진다.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 별자리 28수 중에서도 화의 기운이 거센 '대화(大火)'가 그 기운을 돋우는 상극의 자리에 들어선다. 이런 이유로 옛 중국에서는 2월 무렵부터 불을 관리하는 도감을 두고 화마를 경계했던 것.

어디 그뿐이랴. 조선 시대, 우리 역사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 또한 바로 이즈음에 일어난다.

1426년 음력 2월 26일. 세종대왕 즉위 8년에 화적이 지른 방화로 한양에 대화재가 일어났다. 건조한 땅에 강한 서북풍이 더해져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도성 안의 가옥 1100여 채가 전소되어 최소 32명이 목숨을 잃는 대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 최초의 소방관청 '금화도감'이 설립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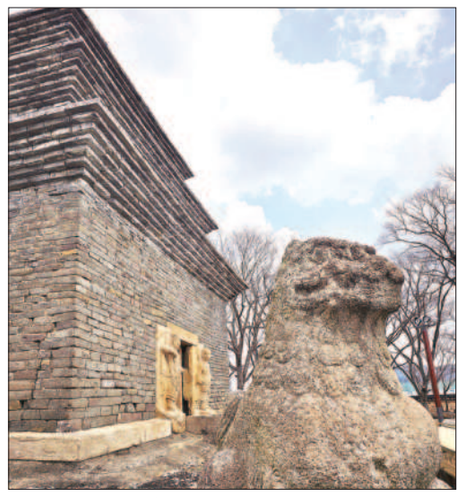
돌탑과 분황사.

금화도감이 내린 방화대책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청명 3일 전부터 바람이 불지 않는 이른 아침에만 불을 때 음식을 하고, 청명에는 불과 연기가 나는 모든 것을 금한다.'

별을 잃고, 계절을 모르고, 절기를 잊은 시대. 우리는 그만큼 많은 것을 연기처럼 날려버린다. 그리고 언제나 너무 늦게, 그 오랜 경고를 떠올리는 것이다.

분황사의 보리밭

춘분을 넘겨 청명을 앞둔 어느 날, 경주 분황사를 찾은 것은 봄이면 이곳에 청보리를 심는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지금도 옛 신라와 오늘의 어디쯤이 연결된 것만 같은 그 고적한 터에 다시 봄이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역시나 신비로운 일이다.



분황사 모전석탑과 사자상.

이제 막 고사리손 같은 모습을 드러낸 청보리싹, 그들이 드넓은 유적지를 자분자분 덮어나가는 계절이다. 마침 현장학습을 나온 학생들과 함께 분황사에 들어서자 그 유명한 분황사 모전석탑(국보)이 방문객들을 반긴다.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 탑은 찍어낸 벽돌이 아닌, 단단한 안산암을 일일이 깎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시대의 걸작이다. 비단 공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닌, 화려한 기교를 배제한 그 묵직하고도 정직한 흑회색의 아름다움 때문이다. 거대한 탑의 사면을 지키는 인왕상과 사자상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빛나는 석탑의 수호자다.

분황사는 선덕여왕의 치세를 기원하며 세워진 사찰이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인연은 원효대사와의 인연에 있다.

'일체유심조'를 깨달은 뒤, 일평생 세상 속에서 민중과 함께 불법을 노래한 해동의 성인. 당대 중국에서는 원효대사의 저서에 부처와 같은 경지에 이른 보살의 것에 붙이는 '론(論)'을 더해 칭송했다. 그런 그가 이곳 분황사에서 〈화엄경소〉, 〈사십회향품소〉 등을 집필하고 불법을 펼친 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그의 사상과 노력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어둠 속을 인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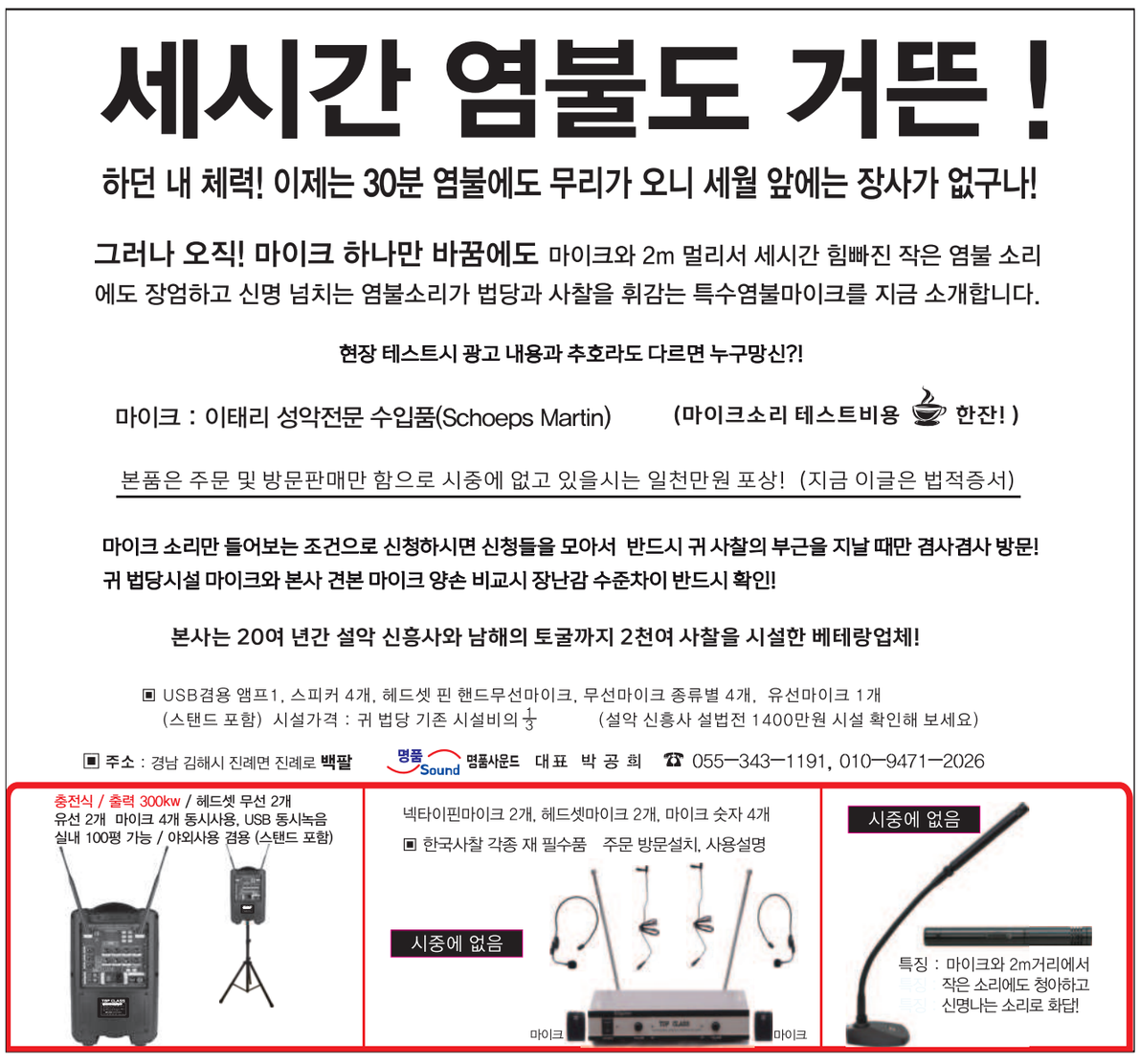
분황사 도량 밖은 드넓은 대지. 보리밭 사이로 오가는 사람들이 쌓아 올린 수많은 돌탑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다. 오래전 분황사의 곁에 자리했던, 이제는 사라진 저 웅대한 황룡사지의 9층 목탑처럼.

청명은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생명의 절기. 자연의 생명력이 희망이 아닌 적이 있던가. 지금도 꿋꿋이 서 있는 저 분황사 당간지주에 옛 신라의 사람들처럼 높이 깃발을 세울 수 있다면. 하늘을 덮을 듯 커다란 깃발을 훨훨 날리면 우리의 바람도 그렇게 온 산야에 전해질 것만 같다.

살아오라.
부디 푸르게 다시 살아 돌아오라.

〈작가〉







대행 스님

여러분! 한 철 살기에 우리 사람답게 삽시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나무라기 이전에 나부터 돌아다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부드럽게 말을 해 주고 따뜻하게 해 줌으로써 집을 안식처로 알고 들어오게끔 한다면 남편이나 자식이나 어찌 안 들어오며 또 아내도 나갔다가도 부지런히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식구들을 위해서. 서로서로가 위하니까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전부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심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으니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란 말을 했죠. 그 한마디에 두 가지 세 가지가 붙어 돌아갑니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는 것은 둘이 아닌 까닭이요 '나'가 있다는 까닭이요, 나를 찾으면 나 자체도 없이 공했다는 까닭이요, 또는 둘이 아니게 이 세상이 공심하고 공용하고 공체로서 공식까지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마음은 대(對)가 없는 것이 한마음이요, 그 한마음은 부처라는 이름도 가질 수 있고 그 한마음은 결국은 길이죠. 그러니 우리 자체가 무엇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부터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가짐가짐, 남을 탓하기 이전에.

그리고 여기 뉴욕에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가톨릭교는 가톨릭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이렇게 쪼개져서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지 않아 천에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쪼개고 쪼개도 항아리 속에서, 즉 말하자면 구더기가 서로서로 여기 요 자리는 내 자리 요 자리는 네 자리 하고 찾는 거와 같으니 얼마나 이게 쓸쓸하고 애석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아리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지구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레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들이 수십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데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하는 거를 속의 중생들이, 그 친구들이 다 압니까? 모르면서 이 부분 저 부분을 맡아 가지고, 공장을 맡아 가지고, 소임을 맡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 싸우죠. 그런데 지배인이 그 마음을, 지금 공부하는 마음을 잘 가지고 있다면 파워가 일어나지 않아요. 싸움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포를 죽이지도 않고요. 세포를 죽이고 파워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몸뚱이를 못 쓰게 되고 어떤 한쪽이 굳어지고 모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천지가 한데 합쳐져야 인이 나오고 음과 양이 한데 합쳐져야 인간 하나가 생산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볼 때 우리 세상 이 천지가 다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고 그래서 '나로부터 알아라.' 나의 국토부터 안다면 이 세계 국토를 알고 세계 국토를 안다면 내 국토도 지킬 수 있고 또 지구 국토도 지킬 수 있다. 역사도 영원히 잘 가져올 수도 간직할 수도 있고, 그러는 반면에 집을 지키려면 바로 우주를 우리는 감지해야 된다.

그럼 나툰다는 법은 무엇인가? 태양도 월세계도 다 나 아님이 없다. 왜 그런가? 내가 주장자를 줄 수도 있고 그 주장자를 내가 가져올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조절입니다. 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즉 말하자면 금방 화해서 약사도 될 수 있고 부처님도 될 수 있고 보현도 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문수도 될 수 있고, 생각났다 하면 문수요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이니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어저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되풀이 한번 해 볼까요? 부처님 마음으로서 사바세계에 관세음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입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동방에 아촉으로 정해 놓으시고 지천국에 지장을 정해 놓으시고, 서천국에는 바로 아미타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거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명이 깨쳐도 만 명 다 그 부처님의 한마음의 한자리입니다. 이 뜻을 아신다면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할 것도 없고 그대로 한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이거는 따지고 들고 그러니 이 중천세계에서 체로 걸러서 바로 상세계로, 마음세계로 오르느냐 하천세계로 떨어지느냐 하는 교차로, 바로 체에다 거르는 것이 중세계입니다. 그러니 이 중세계에서 모두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싸 짊어질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과거에 지고 나온 것도 지금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뭐하러 그렇게 짊어질 겁니까? 전설의 고향을 잘들 보시지만 그건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앞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지 과거에 산 거는 현실이요 현실에 사는 건 미래인 것입니다. 사람이 즉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포천 어디에서 이런 예가 있었죠. 큰 구렁이가 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닦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신문에 나고 모두 야단들이 났었거든요. 한 20년 전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마 20년 더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군인들이 사단 사단이 그냥 무지하게 거기 주둔해 가지고 천막을 치려고 전부 그 산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노인네더러 꿈에 "내가 지금 도를 닦고 있는데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내가 다 해. 끝나. 그러니까 사흘만 말미를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 좀 해 달라." 하고 노인더러 꿈에 그렇게 부탁을, 애원을 하더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내 몸을 딴 데로 옮길 테니까 사흘만 말미를 달라." 그렇게 애원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가서 얘기하니까 군인들은 들어주지 않는 거지. 그 이튿날 또 꿈을 꿔서 또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 줘. 그 이튿날, 사흘 되던 날은 아주 간곡히 얘기해서 가서 대장더러 얘기를 하니까 군인이 그런 미신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곤 안 들었다는 거지. 그랬는데 웬걸 그때 천막을 치고 거기서 전부 자는데 밤에 그냥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비가 오는 줄도 모르게 와 가지곤 그냥 산이 뭉그러져서 전부 일망타진됐어요, 그냥. 근데 그 애원하고 벌벌 떨고 그냥 빌고 빌고 빈 그 노인네 논만 그대로 요렇게 산이 무너져 가지고 막아 주고, 그 집만 막아 줬지, 딴 집들은 다 그냥, 그냥….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보니까, 즉 말하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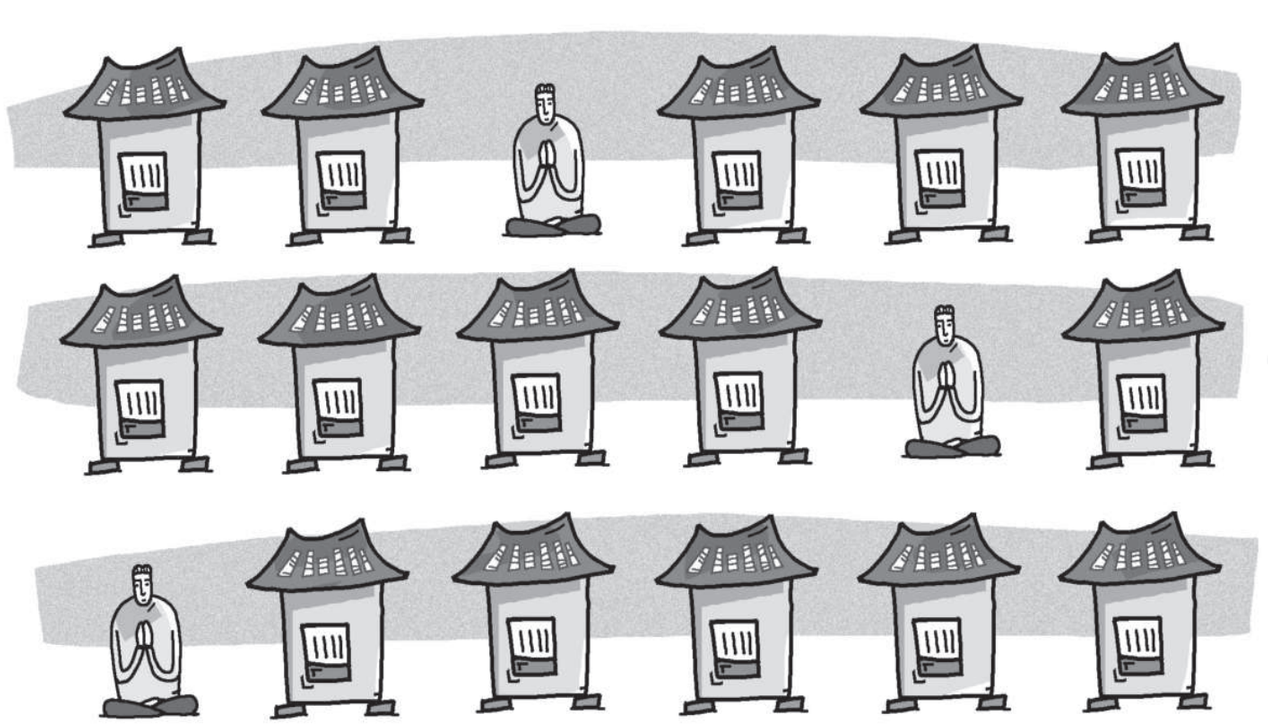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자면 예전부터 원 노릇을 하다가 욕심이 너무 많고 남의 거를 너무 많이 갈취를 했기 때문에 구렁이가 돼 가지고 거기서 내내 있다가 나중에 개심을 하고 천 년을 거기서 이슬을 먹고 이파리만 따 먹고 그러고 산 거야. 그런데 남을 해치지 않고 천 년을 채우려면 사흘 남았는데 그랬단 말이야. 그랬으니 그 동네 일판이 다 그렇게 된 건 그렇게 된 거지만 군인들이 몇백 명이, 아니 그때 몇백 명보다도, 숫자는 다 모르겠어요. 사단이 몇이라니까, 아주.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현상을 보고 이래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겪어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의식이 욕심이나 아집이나 탐심, 남을 탓하는 투기,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안 되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은 가랑잎과 같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래도 인간이라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저런 나뭇가지보다도 못한 때가 많아요. 가을이 돼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도 그 가지는 벌벌 떨면서도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조금도 해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말입니다, 그 한 철 살기 위해서, 나그네 생활로 한 철 살기 위해서 남을 얼마나도 해칩니까? 꼭 해친다고 해서 해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그렇게 해쳐집니다. 거짓말 한 번 하다 보면 그걸 속이기 위해서 백 번은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친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세생생을 끄달려야만 하는 그런 이치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묵은 빚을 갚을 것도 못 갚고 자기 육을 낳아 준 부모까지도 해를 입고 자식까지도 해를 입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자세히 모르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십시오. 우리가 밥을 얻어먹고 돈벌이를 해서 살 양으로 머릴 깎고 이 중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하루 한 끼니 두 끼니 아무거로라도 배 채우면 살 것을 왜 구태여 그렇게 해서 삽니까. 부처님의 이름을 속이고 부처님의 뼈다귀를 팔아서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여기 와도 부처님의 고깃덩어리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체 조사들의 고깃덩어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그 아리따운 마음을 꿰뚫어서 내 마음과 둘이 아닌 마음을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베풀라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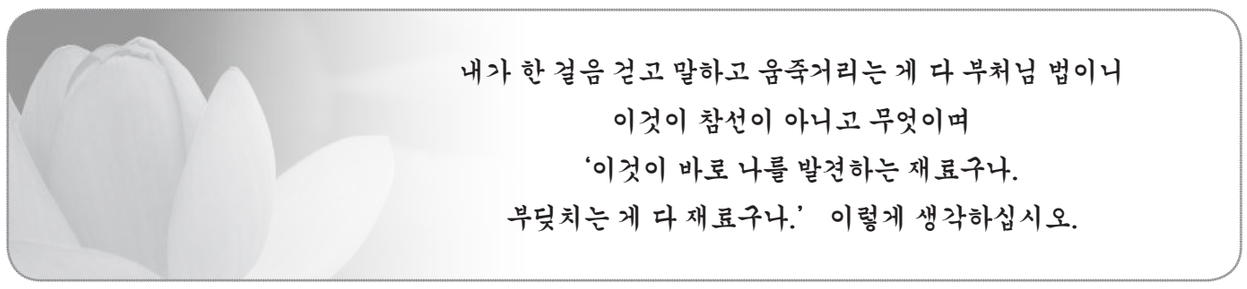
아까 얘기해 드린 거요, 오신통이라는 그 불바퀴 속에서 정신과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공과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천문학과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심리학과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과학자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천체물리학자의 논문도 나올 수 있어. 의학의 논문도 나오고, 모두 전체예요. 이 속에서 다 나오는 거니 이것만 터득한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거든지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나이를 먹었으면 자식들 한테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건 없지만 불가사의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해서 쓸 수 있다면, 앞으로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는 점차적으로 기도 약해지고 자꾸 병도 잦아지고 그럴 시기가 앞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보죠. 왜? 자기 있는 것만 다 쓰고 있는 힘을 다 들여서 정신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고 배우는 것도 너무 그냥 어지럽게 과목을 두고 배우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기가 빠지죠. 기가 없어지면 기를 자꾸 넣어 가면서 써야 될 텐데 기를 넣을 줄을 모른다면, 꼭 차에 기름 넣을 줄 모르듯이 그렇게 된다면 차가 굴러갑니까?

지구도 유지하려면 타의에서 그 모든 것을, 광력이나 전력, 자력을 또 끌어들여서 그 모두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한마음이란 말입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불도 생명이 있고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과 둘이 아닐 때에 바로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물 한 그릇에다가 저 물 한 그릇, 바다가 물 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더러운 거든 깨끗한 거든 거기다 다 부어 보십시오, 두드러지나. 콩 한 알갱이에다가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 전부를 넣는다 하더라도, 부처님 세계를 다 넣는다 하더라도 그릇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이렇게 샘물 나오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 마음속의 주인공, 그 주인공 안의 안테나가 바로 샘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와 같은 겁니다. 내가 깨달을 때까지는 그 수도꼭지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 수도꼭지는 자연적으로 그대로 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도꼭지다 아니다 할 거 없이 그냥 자기가 먹고 싶으면 퍼 먹고 주고 싶으면 퍼 주고 이러는 거지 여기 수도꼭지를 꼭 쥐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죠.

알고 보면 그렇지만 처음부터 아는 척하고 처음부터 "이거면 족하지." 처음부터 "이것이 없다는데 뭘 쥘 게 있어?" 아주 그냥 시험도 안 해 보고 자기가 지혜도 넓히지 못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항상 그러는데, 여기 와서 절을 하는 것이 누구한테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익어서, 무르익어서, 고개가 숙어져 두루 자기 나무에서 자기 실과가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요소, 또 씨앗이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절을 시키는 거지 누가 절을 받기 위해서 그럽니까? 얼마나 귀찮은 줄 아십니까, 그것도? 내가 받는 건 아니지만 그 대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그렇지만 마다하지 않고 그냥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중략)

여러분, 한 철 살기에 우리 사람답게 삽시다. 그리고 어떠한 교를 가지고 있든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누구를 미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경계하지 말고, 적어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가짐가짐을 갖고 언제나 항상 말조심하고요.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한 생각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업보가 얼마나 큰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그냥 추측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다면 그건 업보가 큽니다.

그러니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이 생각하십시오, 각자. 남이 칼로 찔러 죽인다, "너 이놈! 오늘 저녁에 너를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러더라도 허허 하고 빙긋이 웃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탓 안 하고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있으니까 찔러 죽이러 온다지, 내가 없다면 찔러 죽일 게 뭐 있어서 오겠나.' 하고선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칼도 들지 못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처님 법이고 내가 부처님 법을 행하고 있고 내 가정이 다 살아나가는 게 부처님 법 아니고 무엇인가. 내가 한 걸음 걷고 말하고 움죽거리는 게 다 부처님 법이니 이것이 참선이 아니고 무엇이며 '이것이 바로 나를 발견하는 재료구나. 부딪치는 게 다 재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사월 팔일이 닥치는데, 꼭 사월 팔일 날만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영원한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항상 내가 있을 때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열반했다 죽는다 산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죽는 걸 열반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통달해서 여여함을 바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살아 계시면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도리를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우리 열심히,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지금 오하이오 주 주립대학에서는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 따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우다 보니까 논문을 쓸 때 거기서 다 나옵디다." 하고요. 그러니까 애를 쓰지 않고 논문을 써도 아주 슬기롭게 으뜸으로 쓸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고요. 거기는 생물학자니 누구니 누구니 다 여러 사람들이 아주 고르게 있더군요. 그런데 나는 참 놀란 것이 있죠. 예전에 거기에 가서 설법을 하다 그걸 느꼈습니다. '야, 이 속에서 당신네들은 다 논문을 쓸 수 있고 현실로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구나. 이 속에서 다 나가는 것인데 뭐가 어려울 게 있겠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계시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계시니 우리는 둘이 아니게 모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도반들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얕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앉아 있으면 그냥 도반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심부름을 하기에는 너무 좀 무식한 듯하고 못생긴 듯하지만 못생겼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마음 하나는 진정하다는 것을 서로 마음으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만나면 서로 웃고 이렇게 서로 벗이 돼서 얘기하고 이러고 또 헤어지고 그럽시다.

여기 젊은 스님네들이 말은 잘 못합니다만 몇 해를 그래도 마음공부를 했으니 여러분이 정히 괴로울 때 "스님, 난 이러이러합니다." 할 때 저 스님네들이 말은 여러분한테 약장사처럼 잘 못해도 "알았습니다." 한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실히 믿고 가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공부들 하십시오. 스님네들이 그렇게 심부름을 해 줄 동안에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법문은 그치고, 내가 엊그저께 말입니다, 문득 저 창문을 내다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도, 하나 생각난 것도 허튼 생각은 아닙니다.

어젯밤에 눈 오더니
날이 밝아 동이 트니
가지마다 백 송이 피고
뿌리마다 이어 가니
천상 저 높은 산 위에는
하얀 눈이 덮이고
골짜기마다 칡뿌리 이어 가고
칡꽃이 만발했으니
길을 걷던 나그네의
대피리 소리는 온 누리에
님의 계심 전달하니
만 꽃이여!
님의 소식 들었는가 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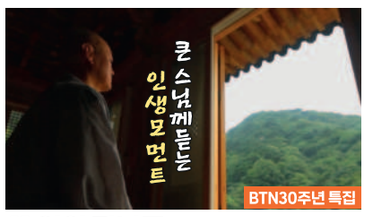
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냥 한번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4월 8일 국외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30TH BTN

함께 이룬 30년
다시 뛰는 BTN

BTN불교TV를 향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
본 목 12:00 재 목 22:30 / 일 15:00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
본 화 07:30 재 화 19:30 / 토 12:00



진명스님의 지대방 시즌3
본 화 12:00 재 화 22:30 / 토 16:00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금 08:30 재 금 19:30 / 토 15:00



법장스님의 투게더
본 금 07:30 재 금 16:00 / 일 23:15



다여스님의 땅설법
본 월 13:00 재 월 22:30 / 토 19:30



고인사이드 글로벌
본 수 07:30 재 수 20:30 / 토 08:30



꽃보다 출가
본 화 09:30 재 화 21:30 / 수 16:30



마음 여행을 위한 GPS 명상
본 수 13:00 재 수 23:15 / 일 14: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⑦ 삼매의 현상들(3)_소용돌이와 연꽃

수행의 핵심은 '지속'에 있다

우리는 수행을 하다가 종종 길을 잃는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요령을 찾는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지만 별 진보가 없어 애만 탄다. 나는 왜 안 되지? 여기저기 선지식을 찾아 헤매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지도는 없고 답답한 마음은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몸부림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 수행의 핵심은 간단했다. '지속'이다.

수행, 끊기지 않고 계속 집중

사마타 수행이건 위빠사나 수행이건 수행의 성공은 '지속함'에 달려있다. 본 연재의 시작에서 화두를 타파하는 방법은 '오롯한 (지속적인) 집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화두를 들다가 말다가 하면 백날을 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 끊기지 않게 계속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의 온도는 100°C가 되어야 비로소 끓어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다. 즉, 놓침 없는 지속성으로 꾸준히 온도를 올려야 비등점을 치게 된다. 물이 낮은 온도로 데워지다가 말다가를 반복하는 지지부진한 상태로는, 액체가 기체로 전환하는 질적인 변화를 볼 수 없다.

사마타의 경우에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이고, 위빠사나의 경우에는 (오온에 대한) '지속적인 알아차림'이다. 어느 수행이건 '지속적'으로 하면, 그다음 단계들이 스스로 문을 열어, 감춰졌던 이면의 세상을 드러낸다. 올바른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이 성공의 관건인데, 수행 초보자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가장 좋은 스승은 (초보자가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 함께 수행해 주는 사람이다. 특정 시간에 특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좌선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해주고 이끌어주어 스승을 찾아라. 즉, 말(이론)보다는 몸(실천)으로 직접 보여주는 스승이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된다.

무의식적 안착의 요령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지속'하느냐.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좌선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또는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가 정신을 맑게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한번 시작하면 '7일' 단위로 해서 총 49일은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이유는 무언가 새롭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에너지의 주기가 7일이기 때문이다. 일주일이 7일로 구성되어 있고, 몸의 세포가 전체적으로 갱신되는 기간이 7년이며, 중음 기간도 7일이 7회 반복된 49일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49일의 수행을 (필자의 경우, 매일 3시간 반씩) 1년에 2회만 하여도 수행력이 일취월장하는 것을 느낀다. 1년에 2번 있는 동안거와 하안거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뒤통수에 피는 연꽃. 이는 청정의식과 소통될 때 나타나는 정화된 에너지의 표상이다. ©강소연

우리는 '수행'이라는, 내 삶에 있어서 전례 없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만 업장을 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은 복잡하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꾸준함'으로 해야 한다. 이 새로운 습관이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 무의식에 정착할 때까지 한다. 그러면 무의식이 알아서 '수행이라는 업력과 업행'을 '저절로' 실행해 준다. 수행의 습관이 무의식에 얼마만큼 깊고 넓게 안착되느냐에 따라, 불안과 고통은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온다. 붓다께서 말씀하신 수행에는 신(神)도 없고 리더도 없으며, 그저 실천적인 'Daily Practice(일상적인 연습)'만이 있을 뿐이다. 실천하지 않는 불교는 껍데기 불교일 뿐이다.

그 외, 사마타의 현상들

지난 연재에 사마타 수행 중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어마무시한 빛과 초대형 여의주, 그리고 만자(卍字)의 소용돌이 등을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만나게 된 몇 가지 현상을 이어서 소개한다. '회전하는 에너지', '알갱이 입자들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허공에 춤추는 무수한 빛의 입자들', '만개한 연꽃' 등이다. '회전하는 에너지(소용돌이 문양)'는 삼라만상이 태동하는 '연기(緣起)하는 모습'이다. 이것과 저것이 만나면 원심력으로 인해 빙빙 돌아가는 에너지 패턴이 생기고, 빙빙 돌아가다가 덩어리지고, 덩어리지면서 만물이 생겨난다. 우리가 태어난 '바탕의 문양'이다. 소용돌이의 회전 문양은, 가장 쉽게는 부처님 형상 중 머리에 한가득 표현된 '나발'로 확인된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경험은 뒤통수에서 '연꽃(또는 연화)이 핀다'는 것이다. 단층의 꽃잎은 투명했고 잎사귀는 이집트 연꽃처럼 폭이 좁고 끝이 뾰족했다. 서양의 가톨릭과 철학의 전통에서는 이를 솔방울이 열린 모양 같다고 해서 송과체(Pineal Gland)라고 한다. 어떤 이는 머리에 해바라기가 폈다하고 또 어떤 이는 장미꽃이 폈다고 한다.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겹겹의 잎사귀가 열리는 모양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화엄경〉과 〈범망경〉에서 "법신불이 천 잎의 연화 위에 앉았는데…"라며 '천 잎 연화'의 만개를 누차 언급하고 있다. 〈관무량수경〉에는 "근기(根機)가 높을수록 연화의 크기가 크고, 꽃잎의 수는 중층으로 무수하게 늘어나며, 또 연화가 피어있는 기간은 길어진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⑦ 고혈압약

약 없이 고혈압 잡으려면?

"약사 양반 혈압 팍팍 낮추는 약 있는가?"

"네, 있지요."

"줘봐."

"병원 다녀오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해요.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라…."

"에이~그런 거 말고! 혈압약은 먹기 싫어.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정말이야?"

흔히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며 체중을 적당하게 잘 조절을 한다면, 높아진 혈압도 낮아지고, 혈당과 콜레스테롤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글 읽는 것을 멈추고 눈을 감고 생각해봅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님들 중 체중을 원하는 만큼 빼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에 성공하신 분 계신지요? 매일 매일 유산소와 근육운동을 적절하게 섞어서 꾸준히 하고 계신 분은요?

아마도 많이 없으실 겁니다.

체중조절과 꾸준한 운동으로 대표되는 건강한 삶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혈압약과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같은 만성질환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20대의 젊고 건강한 신체에는 대부분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기능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몸은 세월을 피해가기는커녕,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 20대와 상당 부분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신체를 20대의 것처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혈압약, 당뇨약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약국에서 근무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높아졌다고 한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드립니다.

"어르신, 태어날 때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지닌 채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된 생활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신체의 노화로 인하여 서서히 높아진 수치들이, 어느 날 검사를 해 보았을 때 정상을 넘어간 수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사성 질환이 왜 무서운지, 왜 매일매일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 벽에 걸리는 압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혈관은 풍선과 같습니다. 한번 부풀어진 풍선에 바람을 빼면 뭔가 흐물흐물하게 탄력이 없어지지요? 혈관도 압력이 높으면 혈관이 약해지며 터질 위험이 올라갑니다. 만약 터진 혈관이 운 없게도 뇌나 심장 쪽이라면? 그게 바로 뇌출혈, 심근경색이 됩니다.

혈관 압력 높으면 터질 위험 증가

올바른 생활습관 · 식습관 갖춰야

좁고 경직된 혈관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이 힘들게 펌프질을 한다면 심장에 무리가 가겠죠? 심장에 무리가 가서 어느 순간 고장이 나버리면 그게 바로 협심증, 심장마비가 됩니다.

혈액 중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은 피가 기름지다는 뜻입니다. 기름진 혈액은 그만큼 혈관벽에 잘 달라붙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힐 위험을 높입니다. 뇌혈관, 심장혈관이 막힌다면? 뇌경색, 뇌졸중이 됩니다.

당뇨는 소변으로 당이 나온다는 뜻이고, 혈액이 설탕물처럼 진득진득해진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을 걸러주는 신장이 망가지게 되고, 손끝 발끝으로 혈액공급이 잘 안 되어 손끝 발끝이 저리고 아프며, 심한 경우 손과 발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혈액이 여러 장기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하게 되니 신체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환이 대사성 질환입니다. 내게 남은 삶의 시간과 질을 결정하는데 밀접한 수치가 바로 이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이지요.

저는 이런 약을 드시기 싫어하시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것은 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 혹은 공사장에 갈 때 안전모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약을 못 끊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이며, 약의 도움 없이 혈압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혈압약을 중단하기 힘든 것입니다.

아직도 특별히 생활습관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무작정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은 드시기가 싫으시다면?

안타깝게도 선생님은 삼도천을 건너는 유람선의 급행 티켓을 발권하셨습니다. 안전벨트 꽉 붙들어 매십시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전법 일기

조계사 49재 문의한 프랑스 가족 부처님 일대기로 불자로 이끌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는 4월, 오늘도 조계사는 방문객들로 붐빈다. 수없이 많은 색색의 연등이 일주문부터 법당 앞마당, 10층 석탑 주변, 아기 미소 부처님 둘레, 그리고 회화나무 가지마다 가득 걸려 마치 극락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든다. 특히, 이 시기는 외국인 방문자가 연중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조계사 외국인 안내소는 일주문 옆에 있어 수많은 방문객이 오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

어느 화창한 4월, 한 중년의 서양 여성이 방문록에 서명한 후, 문의가 있다며 안내소를 찾았다. 그녀는 49재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다. 조계사에서 20년 넘게 봉사하며 많은 외국인에게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소개했지만, 서양 여성이 49재를 문의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51세이며 최근 사랑하는 하나뿐인 남동생을 암으로 잃었다고 했다. 말하며 터져 나오는 슬픔에 어깨까지 들썩였고, 필자 또한 40대에 세상을 떠난 하나뿐인 친오빠 생각이 나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한참을 울고 진정한 뒤, 함께 종무소로 가서 49재 절차를 알아보았다. 생존 가족과 동생을 위한 영가 등을 접수하고, 법당 앞마당과 극락전 앞에 등을 달았다. 그녀의 가족, 프랑스에서 함께 온 남편과 고등학생 딸이 회화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논리적이며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불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남편과 딸의 표정에서는 그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무덤덤함이 읽혔다.

이들 가족에게 잠시 시간이 있는지를 묻자, 괜찮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필자는 이들에게 대웅전 벽화 '팔상도(八相圖, The Eight Great Events of the Buddha's Life)' 앞에서 부처님 일대기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兜率天)에서 호명보살(護明菩薩)로 계시다가, 사바세계에 강림하여 중생을 제도하기로 서원한 그림인 도솔래상(兜率來相)부터 들려주었다. 남편과 딸은 처음엔 다소 거리를 두고 무관심한 듯했지만, 설명이 1/3쯤 진행되자 점점 가까이 다가와 경청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부처님의 출가와 6년 고행,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설명하며 사성제, 중도, 무상, 무아의 가르침을 덧붙였다. 나는 불교가 샤머니즘이 아닌 논리적으로 정연한 진리임을 강조했다.

마침내 부처님이 80세에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沙羅雙樹) 아래에서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이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고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설명할 때에는 마치 오랜 도반처럼 친숙한 정을 느꼈다. 헤어지기 전, 필자와 프랑스인 가족은 서로를 따뜻하게 포옹하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 아래서 세계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자부심 가득한 마음을 이 전법일기에 남긴다.



조정희
국제포교사, 명상 전문 트레이너



송마나의 **시절인연**

약산의 웃음소리

〈藥山〉

벚꽃이 활짝 피었다. 벚나무는 몸속의 꽃을 밀어내 마른 가지마다 봄을 꽃피운다. 벚꽃이 만개한 길은 봄빛으로 들끓는다. 넘쳐흐른 봄빛은 겨우내 얼었던 땅의 껍질을 벗겨내고 숨구멍을 열었다. 생명이 약동하는 길을 걷는다. 끝없이 이어진 길이 하얀 웃음꽃을 터뜨린다.

벚꽃 길 너머로 바둑판처럼 구획을 나눈 시민 농장에 목련꽃도 피었다. 농장 입구에 서 있는 목련 한 그루가 수많은 등불을 켜고 환하게 불을 밝혔다. 봄빛을 가득 머금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꽃봉오리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땅 위로 푸릇푸릇 머리를 겨우 내민 푸성귀들이 목련꽃을 쳐다보며 희망의 웃음을 짓는다. 봄바람에 까르륵 까르륵 웃음소리가 농장에 가득하다.

개는 꼬리를 흔들고 고양이는 가르랑거릴 뿐 웃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웃는다. 웃음은 기쁨과 유머, 농담과 장난기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이다. 보들레르는 웃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웃음이라 했다. 인간은 TV에서 바보연기를 하는 코미디언을 보고 웃고, 타인이 빙판길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린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웃음을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세상에 활력과 여유를 불어넣는 사회적 제스처로 보았나 보다.



그림 · 최주현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늙은 수도사 호르헤는 웃음을 싫어한다. 웃음은 자유로움과 쾌락을 상징하므로 경건해야 하는 신앙생활과 위배된다고 믿었다. 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가운데 '희극'이 나오는 책장에 독을 발라, 그 곳을 읽는 수도사들을 죽게 한다. 웃음은 순수한 인간적 반응이면서도 심리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닌가.

당나라 때, 약산(751~834) 화상은 깜깜한 밤에 언덕을 걷다가 갑자기 나타난 보름달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산 밑 마을까지 들렸다고 한다. 약산은 왜 웃었을까?

봄기운이 가득 차 꽃이 피어나고, 나비가 날아들고, 새가 노래를 부른다. 봄이 오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웃음이 얼어붙었는지. 일체가 차가운 땅속에 들러붙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세상의 허무와 내 자신의 허무가 함께 얼어붙었다.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둠에 매달려 나의 고유한 얼굴을 보지 못했다.

나는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맞이해야 하는가? 왜 나는 죽어야 하는가? 인간은 '왜'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느라 살을 저미고 뼈를 깎는 찬바람과 흰 눈을 견디며 긴 긴 겨울밤을 지새운다. 이런 깊은 밤을 지새워야만 밝은 보름달을 보고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름달이 떠올랐다는 것은 어두운 겨울을 뚫고 웃음꽃이 피었다는 것이다. 인간이 고뇌와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마음의 눈을 뜨면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약산의 웃음소리는 깨달음의 표현이다. 법(法)을 깨달으면 웃음은 그냥 터져 나온다. 나의 웃음소리가 신생의 설렘으로 봄바람에 흩날린다.

〈작가〉

기자칼럼

산불 희생 동식물 천도재를 올리자

보시행으로 유명한 시위왕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기 위해 불의 신 아그니는 비둘기로, 제석천은 매로 변해 시위왕을 찾았다. 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비둘기는 시위왕 품으로 날아갔고, 왕은 비둘기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다. 시위왕 앞에 온 매에게 왕은 자신의 살을 잘라 매에게 보시했다.

하지만 정확한 무게로 살을 잘라줬음에도 비둘기의 무게에는 미치지 못했고, 결국 시위왕은 자신을 희생해 몸 전체를 저울에 올렸다. 시위왕의 결심을 본 이그니와 제석천은 신의 모습으로 돌아와 왕의 결심과 보시행을 찬양한 뒤 천상으로 돌아갔다.

부처님의 전생담 '시위 자타카'가 떠오른 것은 지난 주말, 최원형 생태환경작가와 통화한 직후다. 원고 청탁을 위해 통화하던 중 주제는 자연스럽게 산불 이야기로 넘어갔다. 이날 대화에서 최원형 작가의 일침은 귓가에 오래 남았다. 요지는 이렇다.

"이번 산불로 인해 몇 헥타르의 산림이 타고, 경제적 손실이 얼마고, 인명 피해가 몇 명인지 산술적 통계들이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살피려 하지 않는다.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불교계조차도 이 같은 논의가 없다."

2020년 호주 산불 당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코알라를 구조하는 사진이 외신에 소개되며 세계인을 안타깝게 했다. 당시 호주 산불로 코알라를 비롯한 동물 113종이 서식지 30%를 잃었다. 이번 영남 산불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삼수갑산을 노닐던 한반도 토종동물도 생을 잃고 서식지가 상실됐을 것이다.

이번 산불로 인해 30명의 인명이 희생됐다.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더불어 산불에 쓰러져간 동물과 식물에 대한 극락왕생도 기원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즈음해 불교계가 앞장서서 산불 희생자와 뭇 생명에 대한 천도재를 봉행하는 것이 어떨까. 부처님께서는 난생·태생·습생·화생과 형태·생각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무여 열반에 들어가게 해 멸도케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자연은 지금 법문 중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정사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요즘 들어 뉴스에서 산불 소식을 자주 접한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유럽, 아시아 곳곳이 불타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올해 봄이 너무 일찍 왔다",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이건 단지 계절 탓이 아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미 경고해 왔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이 1.2도 상승했고, 지금 같은 속도라면 2030년엔 1.5도를 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회복력을 잃고,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문턱을 넘게 된다.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징조를 겪고 있다.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 기상이변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 절반 크기의 산림이 불탔고, 수만 명이 대피했다. 자연의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업에 따른 과보이다.

모든 현상은 법문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기후위기 또한 부처님의 설법이다. 책 속 말씀이 아니라, 현실 속의 '당체법문(當體法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고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첫째, 인간은 탐욕으로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해 왔다. 석탄과 석유, 가스를 마구 써 온실가스를 넘치게 했고, 이는 지구를 가둬 뜨겁게 만들었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는 '투도', 곧 도둑질이다. 자연의 허락 없이 가져다 쓴 업이다.

현 기후위기, 우리 業의 산물
자연 순환 끊은 구조적 업보
욕망 식을 때 지구도 식는다

둘째, 우리는 숲을 밀어 공장을 짓고 도시를 세우며 탄소 흡수원을 제거했다. 이 또한 공동의 무지, 곧 공업(共業)이 아닐 수 없다. 자연의 순환을 인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다.

셋째, 우리는 다음 세대가 쓸 자원까지 앞당겨 써버렸다. 그 결과 미래 세대는 우리가 지은 업의 과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이것은 세대 간의 '투도'이며, 구조적인 업보이다.

이러한 탐욕과 무지, 투도는 결국 오늘의 지옥을 만들었다. 지옥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곧 현세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는 회피하는 종교가 아니다. 고통을 똑바로 자각하는 데서부터 업의 정화가 시작된다. '이건 내 업이 아니다'라며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업을 짓는다. 하지만 '이건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그러니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삶을 바꿔야 한다. 에너지와 소비를 줄이고, 고기 섭취를 줄이며,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수행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탐욕을 멈추는 마음공부이다. 절제와 자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업을 쌓는 길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에는 마법 같은 해답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업을 멈추고 선업을 짓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부처님은 지금도 불길 속에서 설법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듣고도 외면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망각이다.

불길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 욕망이 만든 불길이다. 그 마음이 식을 때, 지구도 식게 될 것이다.

'대마도 한국문화원'이 필요하다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지난 3월 25일 일본 대마도에 다녀왔다. 일정 중에 눈에 띄는 기념석이 대마도박물관에 있었다. '성신지교린(誠信之交隣)', 외교는 신의를 기본으로 성심성의를 가지고 이웃과 같이 서로 교류하는 것으로 시냇물이 바닷물을 이루는 것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마도 유학자인 아메노모리 호슈(1668~1755)가 〈교린제성(交隣提醒)〉이라는 책 속에서 강조했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소위 7년 전쟁으로 조선과 왜국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 틈에 끼인 대마도는 그야말로 살길이 막막했다. 대마도 번주는 조선과의 화친을 위해 국왕 문서를 위조할 정도로 다급했고, 다행히 집권한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과의 화평을 희망했다. 왜국은 대마도 번주는 조선에 사신을 보냈고 1604년 사명 대사가 왜국에 사신으로 왔다. 그 이후 '성신지교린' 정신으로 양국은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270년이 넘게 유지된 외교 정신이다.

서산 부석사 불상 봉안 운동을 계기로 대마도에 많은 한국의 유산이 있다는 사실이 조명되고 있다. '대마의 미술'에는 '조선의 불상' 87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다구두혼 신사에 있는 고려 청동반자(쇠북)는 1245년 5월 진양공 최이가 강화도 선원사 창건 기념으로 제작한 것이다.

사실, 대마도나 규슈 등 서일본지역의 문화유산은 개인이나 신사, 사찰의 소유가 많다. 이런

부석사 관음상, 대마博 봉안 예정
韓법원 '약탈' 인정, 문제 소지多
신의 부합할 민관단체 발족 필요

이유로 전수조사가 대단히 어렵고 지금도 사장(死藏)되어 있거나 밀거래되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암거래를 방지하고 공개·공유할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실제로 부석사 불상 도난 사건 외에 문화유산 절도 사건은 그 이전에도 10여 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책임은 일본에 있다. 2022년 개관한 '시립 대마박물관'은 부석사 불상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대책이다.

박물관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윤리강령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박물관은 출처와 내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소장품의 불법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또한 유산이 유래한 기원국과 협력하고 반환에 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법원이 왜구 약탈의 상당성을 인정한 부석사 불상을 대마박물관이 보관 전시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부석사 불상만의 해결이 아닌 대마도에 있는 전체 유산과 유적에 대한 조사와 가치 확산 방안, 고령화된 대마도의 사정으로 무인 상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문화유산과 방치되는 유적지 그리고 연간 3~40만명에 이르는 한국인 방문객 등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의에 부합하고 성심성의를 다해 교류 협력할 현지에서의 주체가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다른 영역으로 확장성이 있어야 하고 계승할 수 있어야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대마도에 명예영사제도를 활용한 '한국문화원'의 개원을 국회에 제안했고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마침 한국인 사찰로 처음 개원한 '황룡사'가 최적지란 뜻을 모았다. 민관협력 사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社 說

최악 화마 할퀸 자리, 자비로 치유를

3월 21일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영남 산불은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듯하다. 3월 30일 주불이 진화된 영남 산불은 서울 면적 80%에 달하는 4만8238ha의 대지를 태웠고, 사망 30명, 부상 45명 등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주택 3000여 채, 국가유산 30건, 농업시설 2000여 건 등 모두 6000여 건의 시설 피해가 났다.

고찰과 전통사찰들이 대부분 산에 있는 만큼 불교계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의성 고운사·운람사·만장사, 청송 수정사·보광사, 안동 용담사 등 총 6곳의 사찰이 산불 피해를 입었고, 불교문화유산(국가지정유산, 경북 유형문화유산) 피해는 9건으로 확인됐다.

불교계를 비롯한 한국 사회는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불교계의 자비행은 비단 피해 사찰에만 머물지 않는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운사는 봉축 예산을 지역의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데 회향하기로 했다. 매년 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위해 진행한 1080배 정진 모금 운동도 이재민 돕기 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대표적인 불교 사자성어가 '빈자일등(貧者一燈)'이다. 거지 여인이 모든 것을 바쳐 밝힌 등불은 세찬 비바람에도 홀로 빛났다. 화마가 할퀴고 지나간 자리, 자비의 연등을 밝혀 치유하자. 불자와 국민의 서원과 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삼원통합, 포교·출가 혁신으로 이어져야

4월 1일 조계종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1994년 종단개혁의 성과로 출범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이 총무원 1원으로 통합된 것이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31일 개편된 조직에 따라 부·실장 및 국장 등 교역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조계종연구소와 미디어홍보실 신설이다. 조계종연구소는 종단 내 불교사회연구소, 불학연구소, 포교연구실 등 연구조직을 통합한 것으로, 종단 종책 연구와 어젠다를 마련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디어홍보실은 한국불교 관련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뉴미디어를 통해 종단 대사회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종단 뉴미디어 운영, 불교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통합해 총무원 1원 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탈종교화로 인한 불교 인구와 출가자 감소는 더 이상 교육원과 포교원이 별원 형태로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도리어 각 원별로 자체 사업에만 몰두하다보니 행정력이 분산돼 3원 독립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이번 삼원통합의 핵심도 포교와 출가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처를 목표로 한다. 변화된 조직에서 한국불교 포교와 출가 문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종책이 수립·시행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안양시 시민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한마음부모교육

행복한 부모의 길
공감과 소통



신 청 안 내

수 강 료 : 무료
대 상 :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 (35명)
일 정 : 5월 1일 ~ 6월 19일 매주 목요일, 8주간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 소 :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신청방법 : hansi.org 또는 전화
전 화 : (031) 470-3200, 3196
신청QR코드

행복한 부모의 길-공감과 소통 교육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또는 살아가려는 모든 분이 부모 이전의 자기자신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삶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어싱Earthing 슈즈 특별전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접지 슈즈



◀베이지



블랙▶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어싱 샤모아 슈즈

어싱 샤모아를 새로 출시합니다.

샤모아 (chamois) 는 다공성 가죽의 일종으로, 유럽의 샤모아 산양의 가죽에서 유래된 것.
오늘날에는 지역 구별없이 산양의 가죽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매우 유연하고, 의복용, 장갑용 사용되기도 하며, 세탁해도 유연성이 변화되지 않고
더운 여름에도 땀이 덜 차는 장점이 있다.



판매가 80,000원 사계절용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4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